

2018학년도 하계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 탐사보고서

“한국 노인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구”

팀명: Silver-ocean

목 차

I . 서론

1. 탐사 배경
2. 탐사 주제 및 목표

II . 본론

1. 국내 사전 답사 및 인터뷰
 - 1) 지혜로운 학교
 - 2) 부산 대안 가족 사업
2. 영국 노인 공동체 탐사
 - 1) Toynbee Hall -사전조사내용/ 현장조사내용
 - 2) Julianne Meyer 교수님
 - 3) University of the Third Age(U3A)
3. 독일 노인 공동체 탐사
 - 1) Haus der Familie
 - 2) BAGSO
 - 3) Tat Und Rat
4. 핀란드 노인 공동체 탐사
 - 1) Loppukiri Housing Community
 - 2) Kotisatama
 - 3) Aktiiviset Seniorit ry(Active Seniors Association)

III .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1. 탐사 배경

이화에서의 여러 경험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장하게 했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여성문제에 대한 경험과 관심을 통해 자연스레 장애인·성소수자 등 여타 사회적 약자의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교양수업에서 진행하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이 겪는 여러 문제를 마주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LEAP 소그룹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하며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규정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더해서 동계 이화봉사단에서의 경험은 장애인에서 나아가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나라를 막론하고 현 사회는 고령자의 말벗이 되는 일이 '대민봉사'라는 이름으로 치부되는 사회다. 노인 세대가 생산적 활동에 대한 기회를 얻거나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다. 또한 베트남 봉사에서 만난 환자 중에는 만성질환 및 퇴행성질환을 겪는 고령자가 많았는데, 그들과 함께 하며 고령자 대상의 의료복지의 중요성 또한 절감하게 되었다.

노인 세대에 대한 조치는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 노인세대는 부양의 대상으로 치부되곤 하고, 노인 세대 또한 당신들을 사회의 짐처럼 여기곤 한다. 단편적인 예시로 많은 조부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싶으나 당신이 짐이 된다는 부담감에 이를 꺼리곤 한다. 또한 노령에 따른 건강 문제에도 “장사를 그만두면 그 시간을 채울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일을 계속하는 어르신도 다수 있다. 이는 노인 사교의 장이나 새로운 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좁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일화는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노인복지산업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했고 오늘날의 노인 복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끔 했다.

통계청 인구비율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전체의 14.3%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까지 증가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¹⁾ 그러나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복지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경희 선임연구위원의 '한국의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수는 48점으로 스웨덴(59점) 영국(57.1점), 독일(55.2점)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며 스페인(48.8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노인의 삶의 지수가 높은 나라에서의 노인 세대는 우리나라 노인 세대와 삶에서의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 호기심을 갖도록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노인복지 기관을 방문하고 현황을 분석한 후, 이후 노인복지의 선진사례로서 유럽 국가를 방문하여 운영 조직과 개인의 인식에 집중해 양상을 비교하였다.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촉구가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노인공동체 기관을 선정하여 탐사하고자 했다. 그 결과 유럽의 영국, 독일, 핀란드를 해외 탐사 국가로 선정하였다.

노인복지의 선진사례로서 유럽은 정부와 지역 사회, 노인공동체 단체와 구성원의 협력 하에서 노인공동체를 발전시킨다. 또한 세대 간 협력을 강조하며 노인문제가 비단 노인세대에 국

1) Wan He, Daniel Goodkind, and Paul Kowal, An Aging World: 2015 International Population Report, US Census Bureau, 2016, p. 12.

한된 문제가 아님을 역설한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복지 공동체 사례에서는 정부와 노인복지 민간단체 간 협력이 단단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한 채 산발적인 노인공동체로 존재한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는 해외 사례의 노인공동체를 비교하고,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실질적인 노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성공적인 노인공동체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 복지 문제를 전 세대의 문제로 환원하고 세대 간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현 한국 사회의 시각에 문제제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공동체의 구성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탐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노인공동체의 발전 방안, 인식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탐사 주제 및 목표

본 팀은 탐사배경에서 밝혔듯 고령화 시대의 급속한 도래에 따른 노인 복지 방안 모색의 시급성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국내 사전 답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탐사를 통해 노인 공동체 및 기관의 선진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실제로 국내외 공동체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정부와 노인공동체 단체 간의 관계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다. 유럽의 노인공동체는 주로 정부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받지만 정부와 별개로 각 공동체의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 정부는 노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하되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노인 세대의 문제를 전 세대의 문제로 간주하고, 세대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노인 복지 민간단체와 정부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다. 설사 연계가 되더라도 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섭으로 인해 노인 복지 민간단체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인식적인 차원에서 유럽의 현실은 노인세대의 문제를 부양의 부담으로만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

성공적인 노인공동체여도 국가마다 공동체마다 기관마다 노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상당히 상이하다. 그 중 본 팀은 영국, 독일, 핀란드에 방문하여 노인공동체와 관련 기관을 탐사하고자 한다. 이 3국의 노인복지 및 노인공동체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물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의 지지 하에 형성되어 규모 있는 단체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본 팀의 탐사주제는 “노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 노인 공동체 활성화 대안에 대한 연구 - 영국, 독일, 핀란드 선진사례를 중심으로”이다. 영국, 독일, 핀란드의 노인 공동체와 노인 복지 관련 기관 탐사를 통해 각각의 활동을 정리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 영역, 운영체계를 분석한 후 각 기관의 특징적인 그리고 강점이라고 판단되는 체계와 요구되는 역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취사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내 노인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팀의 세부적인 탐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국내 노인공동체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에서의 노인복지 상황과 각 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다.
- 나. 해외 노인공동체와 기관에 방문하여 각각의 실질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다. 해외 노인공동체와 기관의 강점을 분석한다.
- 라.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노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던진다.

II. 본론

1. 국내 사전 답사 및 인터뷰

1) 지혜로운 학교

가) 사전 자료 조사

지혜로운 학교는 U3A의 정신을 기반으로 노년층의 자발적인 주도에 의해 설립된 평생학습공동체이다. 회원들은 사회 경험과 전문 지식을 서로 나눔으로써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모두에게 배울 수 있다는 전제에 의해 참여할 수 있는 회원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러한 회비는 학교 운영을 위한 홍보나 경비로 쓰이며 추후 지혜로운 학교의 도약을 위한 기본자금으로 축적되기도 한다. 지혜로운 학교에서는 이 내역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정성을 유지한다. 회원은 누구나 무료로 강좌 개설과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라틴어 기본과정, 적천수 강해, 사주심리학, 타로카드와 수비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들이 운영 중에 있다. 지혜로운 학교의 모든 운영진과 서포터즈, 강사는 무급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 공동체의 자발성과 지속성을 인정받아 서울시 평생학습부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인터뷰 실시 결과

김명중 이사님에 따르면, 지혜로운 학교의 토대는 서울시 희망제작소에서 운영한 행복설계 아카데미에 있다. 행복설계 아카데미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며, 퇴직(예정)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이웃과 사회에 나눌 수 있는 제2의 삶을 설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행복설계아카데미 교육 수료 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컨설팅 교육 과정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이수한 경우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컨설팅단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혜로운 학교 또한 이러한 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행복설계아카데미 10기를 수료한 일부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다방면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실소유자 감소로 인해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단체의 활성화 미비에서 기인한다. 설립 초기 당시의 미흡한 홍보와 부족한 재정은 단체가 활성화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도 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기업의 핸드폰에만 있는 연락처 그룹 기능을 통해 알 수 있듯 우리나라는 유럽권 국가에 비해 사회적 유대관계에 의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려는 욕구가 적다. 또한, 배움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여 학습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게다가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공동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가 분산되는 경향도 일조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로운 학교에서는 젊은 세대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토마토포럼과 같은 회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고안하는 등 여러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 분석

해외 노인복지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노년층의 자발적 움직임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은 해외 노인공동체 선진사례를 통해 두드러진다. 특히 다수의 노

인공동체는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교육과 경제적 생산, 봉사 등 사회참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결속력이 형성된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노인들은 자신이 충분히 생산성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청장년층도 일방적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노인세대에 대한 보편적인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패러다임과 인식의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국내 노인복지는 정부에 의한 경제·사회·문화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정부는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생활비, 무료 지하철 등을 통해 노년층에게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요양시설, 경로당, 계모임 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배우거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제공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노인세대는 정부 주도 정책의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해외 노인공동체 선진사례와 비교하여 자발성이 부족하여 국내 노인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답사를 다녀온 결과, 국내 노인공동체인 지혜로운 학교에서도 자발성 측면이 두드러졌다. 오히려 자발성이 아닌 다른 요인에서 그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서 인터뷰 실시 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노인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동체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정부와 단체, 참여자를 잇는 전반적인 운영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2) 부산 대안 가족 사업

가) 사전자료조사

부산시는 핀란드 고령자 자활공동체 ‘로푸키리’를 벤치마킹하여 17년 6월경부터 시작된 ‘생애 마지막 전력질주’ 기획팀의 자활공동체 사업을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이라는 시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고령자 1인가구의 빈곤,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밀집 주거지역을 선정하여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혈연을 뛰어넘는 대안가족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한다. 시민사회복지법인인 우리마을복지법인이 위탁하여 맡고 있으며 민, 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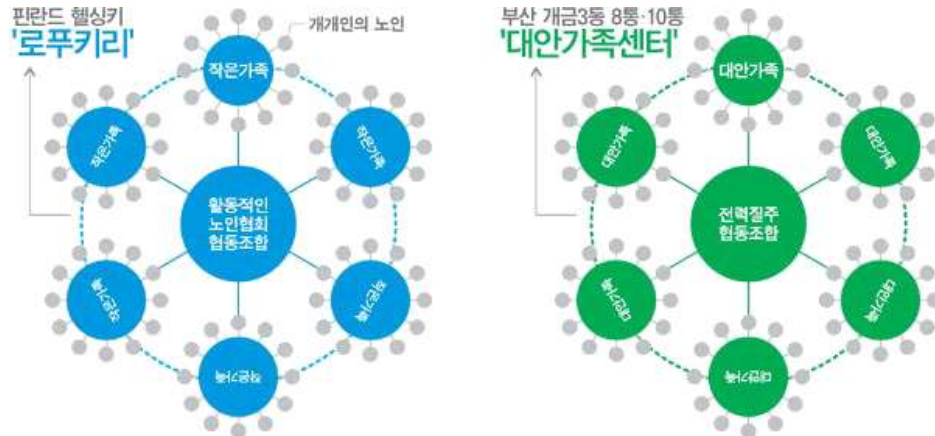
협동조합설립, 음식 나누기, 공동생일잔치를 비롯한 소모임 활성화, 건강관리,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업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복지재단 등과 연계해 노인 자립을 지원한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은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제적인 자활까지도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함께 콩나물을 키우고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인들이 스스로 만든 공동체에서 가족같이 생활하며 필요한 모든 일은 직접 해결한다는 점에서 요양원이나 다른 노인복지와는 차이가 있다. 개인의 의지가 모여 출발한 프로젝트이지만 이제는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가 대안가족센터 리모델링을 담당하여 지원하였고, 부산시는 예산 1억 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개금 3동 8통, 10통 거주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취미와 여가, 경제생활을 공유해 가까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구조인 대안가족은 노인은 그저 도움을 받는 대상, 즉 수혜자일 뿐이라는 편견에 맞서 노인의 자활이 가능함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부산시 대안가족사업은 지역사회의 관계망을 형성해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시

도이다.

나) 인터뷰 실시 결과

우리마을복지법인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과 설립배경의 차이가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은 몇몇 자본가가 모여 법인을 설립해서 시설, 기관 등을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림 1> 로푸키리와 부산 대안가족센터 운영구조

상대적으로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마을복지법인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회비를 모아서 출현한 법인으로, 법인이 자체적으로 마을활동가를 고용하고 마을 사업을 진행한다.

대안가족사업의 아이디어 역시 마을활동가의 그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고안된 아이디어이다. 최근 고독사, 자살 등의 이슈가 더욱 심각해졌고, 우리마을복지법인 역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은 ‘관심’이라고 판단했다. 친밀감, 관계 형성이 된 지역사회 네트워크(혈연이 중심이 아닌 사회적 지지 지원체계의 형성)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은 ‘관심’을 실천하기 어렵다. 이 때 마침, 국제신문에서 복지법인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기획시리즈를 연재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사업의 대상은 지역사회주민 전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다 연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50~60대분들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로 이끌어 내고자 한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의 초기단계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여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적극적인 성향을 띠기도 하시는 할머니들과 먼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업을 시작해나가고 있다.

전력질주 협동조합은 대안가족사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핀란드 로푸키리의 노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대안가족사업에 참여하시는 부산시 개금3동 할머니들은 그렇지 않다. 수입보다는 지출이 10만원 가량 많은 상황이었고 이를 반찬까지 줄이기, 병원 한번 안 가기, 폐지 줍기와 같은 방법으로 메꾸고 계셨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으면 대안가족 사업의 활성화 또한 차질이 생기기에 할머니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복지법인에서 출자금을 대어 시작한 것이 전력질주 협동조합이다. 주요 수요처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다. 기업에서 봉사를 나가거나 식사가 필요한 때에 7분의 조합원 할머니들의 반찬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할머니들은 빈 10만원의 공백도 메

꾸고 삶의 활력과 자신감도 얻으실 수 있었다. 핀란드 로푸키리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과 다른 한국 노인의 현실을 고려한 대안가족의 사업 중 하나가 전력질주 협동조합이다.

또한, 핀란드 로푸키리가 거주공동체인 반면 대안가족은 거주를 함께하지 않는 점 또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거주공동체를 시작하려면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자체 또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대안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거주공동체 사업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었다. 주거공동체의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싶은 때에 하며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한편으로 외로움도 크게 느끼신다. 그렇기에 공동거주를 하는 형태보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규모 취미활동을 하거나 마을 잔치를 하는 등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대안가족의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안가족사업에서는 마을 주민 간의 관계 지속과 교류 촉진을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의견은 주로 마을 활동가 분들과의 면대면 대화를 통해 사업 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마을활동가가 대화를 통해 동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활동의 시행을 결정하고자 할 때 추가적으로 일시적 회의를 진행한다. 김일범 팀장님에 따르면 대안가족사업은 앞으로 마을 청소, 지역 독거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반찬 배달 서비스, 사업 홍보와 주민 교류를 위한 경로당 순회, 지역 사회 수준의 김장하기, 재무상담, 의료사업 확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민간의 교류를 높이고 주민간의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대안가족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사업의 결과물 자체를 평가하고 중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진행하면서 중심이 되는 것은 대안가족과 지역사회 교류 촉진, 즉 ‘사람’이며 협동조합은 형태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사업의 결과물을 중시하고 평가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힘들다. 또한 사업 자체가 사람을 위한 일이고, 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므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데 반해 적은 인력밖에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김일범 팀장님은 덧붙였다.

우리마을복지법인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기업의 사회공헌부서, 부산 신한만 주식회사와 협력하여 현재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신한만 주식회사의 후원으로 센터 옥상에 쿨루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근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치료를 지원한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나아가 고객 유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협력 병원과의 win-win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우리마을복지법인은 작년까지 주로 회원들의 기금과 기업 후원으로 운영되었다. 올해부터는 국제신문의 특집 기사를 통해 진행 중인 사업들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전력질주 협동조합을 국제신문의 출자금 후원을 통해 설립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운영 기금으로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조합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핀란드 로푸키리 사업은 구성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삶’ 자체가 로푸키리의 지속적

인 참여가 된다. 이에 반해, 부산대안가족사업은 거주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부산대안가족사업은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구성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주력한다.

다) 분석

우리나라는 정책 수립과 진행에 있어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보조금을 결과로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또한 기존에 지출한 사업 계획서대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사람과 과정이 중심이 되는 여타 사업이 시급한 경우 행정적 한계를 초래한다. 부산대안가족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주는 예시다. ‘협동조합’이라는 성격보다는 ‘사람’을 위한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대안가족사업은 경제적 지원의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시 보조금을 받은 현재도 결과중심적인 관료제의 문제에 의해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의 ‘사람’을 위한 복지는 ‘실적’을 위한 복지에 의해 평가 절하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국가적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개인에 국한한 복지라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이러한 현재 시행에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분들은 함께 거주하고 계신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 분들이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아 부산대안가족사업에서 지향하듯이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혈연이 아닌 사회적 지지체를 형성함으로써 해결해나가야 한다.

또한 인터뷰와 사업 참여자 분들을 방문하며, 운영체계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역량 또한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체계 자체에만 집중하다보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실질적인 성과 없이는 지원을 주지 않는 등의 역기능이 관료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업의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더해서 아직까지는 가장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깨달았고, 크고 방대한 목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웃 간의 관계 등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홍보의 중요성, 사업의 지속성과 장기적인 계획,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특정 조건에 대한 편견 배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관심이 노인세대를 비롯한 전 세대의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열쇠임을 배울 수 있었다.

2. 영국 노인 공동체 탐사

1) Toynbee Hall

가) 사전조사

토인비 홀은 세틀먼트의 발상지인 동시에 운동의 상징으로 일컬어진다. 이 곳은 1884년 런던의 빈민, 노동자에게 사무엘, 바네트 부부의 지도에 따라 자원봉사 대학생들의 손으로 세워진 세계최초의 세틀먼트하우스(사회복지관)이다. 세틀먼트 운동에 투신하여 젊은 나이에 사망한 아놀드 토인비를 기념해서 토인비 홀로 명명되었다. 세틀먼트 운동이란, 복지가 안된 지역에 대학생이나 지식인 등이 의식적으로 들어가서 정주(定住)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살면서 접촉을 통하여 주민을 조직화하고, 자발적인 조

직을 형성하고, 보건·위생·의료·교육·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행하여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운동이다. 1870년대 런던 이스트 엔드의 노동자의 빈궁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A.토인비를 중심으로 케임브리지·옥스퍼드의 학생들이 빈민가에 입주하여 생활향상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이 그 기원이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프로젝트, 자문 서비스, 그리고 재정적인 작업은 모두 영국에서 가장 궁핍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한다. 토인비 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Free Advice - City, Debt, Legal, Macmillan Benefits(암 치료비용) Advice
- Free Support - Older people's services, Deesha English classes, Money support
- Projects - Youth, Dignify Financial inclusion, Tackling debt
- Training and Consultancy

본 팀은 Older people's services에 주목하고자 한다. 토인비 홀의 웰빙 센터에서는 Tower Hamlets 또는 the City of London(Square Mile)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현장답사

본 팀은 2018년 7월 10일 토인비 홀에 방문하여 센터 매니저인 샘 크로스비(Sam Crosby)씨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프로그램 참관을 하였다. 먼저, 토인비 홀의 홍보 방식이다. 토인비 홀은 대체로 입소문에 의존하여 홍보를 한다. 토인비 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토인비 홀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방문한다. 토인비 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방문할 것을 장려한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어 그들에게 닿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토인비홀에서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개월 간 토인비 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수백명에 달한다. 인터뷰 당일에는 오후 2시까지 20명이 방문하였다. 매일 방문하여 다양한 의료 및 케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받는 것이 주된 경로이지만, Link Age의 직원들이 직접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여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경우도 있다.

토인비 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런치 클럽이란 문자 그대로 점심을 먹는 모임이 아닌 토인비 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역 의회와 여러 기관과의 미팅을 의미한다. 런치 클럽과 Linkage와는 서로 다른 계약이지만 토인비 홀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일종의 파트너십으로,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도 한다.

토인비 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진행한다. 자원 봉사를 거쳐 토인비 홀에 정식 직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토인비홀 내의 자원봉사자와 스태프 사이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크로스비씨는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예상하기로는 5:5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본 팀이 방문한 당시 자원봉사자는 빙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1명이었으나, 오전 시간에는 주로 더 많은 봉사자들이 활동에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자원봉사자의 나이대는 다양하며 누구

나 토인비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토인비홀의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참여하며, 재무나 법률 상담, 의료 서비스 또는 이동 서비스 등의 여러가지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도 다양한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이러한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세대 간 활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활동이 예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토인비홀의 참여자 수용 역량에 관한 질문에서는 크로스비씨는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물론 물리적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더 많아진다면 수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 유치를 통해 다른 공간에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재정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역 정부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 때문이었다.

토인비 홀은 참여자 중심의 운영이 돋보이는 곳이었다.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기록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지만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크로스비씨는 단순히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 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개인적인 변화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항상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며 웰빙 지수(Wellbeing Scal)를 측정하고 있다. 웰빙지수란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며 변화하는 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존중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등의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센터에 처음 방문했을 때와 3~6개월 이후에 다시 한다.

또 하나의 참여자 중심적인 면모는 참여자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점이다. 운영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센터 내의 공간 사용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실제로 회의 결과는 곧바로 적용된다. 센터가 운영하는 활동들도 마찬가지이다. 활동 역시 참여자들의 의견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한다. 물론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크로스비씨가 생각하는 노인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사적인 노인모임이 많은데 이런 모임들로는 홀로 지내는 노인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기 쉽지 않다. 하지만 토인비홀의 웰빙센터에서는 50대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이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센터장인 크로스비씨의 말에 의하면, 토인비홀 웰빙센터는 토인비홀의 관할지역인 Tower Hamlets의 지역 정부가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운영이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영국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노인문제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 내의 지역마다, 심지어는 런던안의 서로 다른 지역조차도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정도가 다 다르다. 좋은 활동이 있어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가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정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노인공동체 활성화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인비홀 웰빙센터는 많은 기관과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LinkAge Plus와 같이 다양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단체와의 공식적인 파트너십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파트너십도 굉장히 많다. 공식적 파트너십인 LinkAge Plus와 하는 활동 중의 하나로는 50+ working start가 있다. 50세 이상 실

직자 중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구직활동을 돕는데, 지역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무료로 운영한다. 토인비홀 웰빙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을 받아 LinkAge Plus에 연결해 job training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비공식적 파트너십의 관계에서는 타기관 프로그램 견학, 교육인력파견 등을 진행한다. 이는 공식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것과 같은 협업은 아니지만, 서로 새로운 활동이 진행되면 정보를 교류함으로 노인 문제 해결의 끊임없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Julianne Meyer 교수님

가) 사전조사

Julianne Meyer교수는 간호사 및 교사로 런던 대학교 시티에서 노인들을 위한 연구 개발을 이끌고 있다. 그녀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협력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실행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그녀의 연구 방식은 증거에 기반을 두는데 관계를 중심으로 존중 행동 지향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메이어 교수는 전통적 경계(공공 및 민간, 정책 및 관행, 연구 및 교육)를 넘어 다양한 분야(보건, 사회 복지, 주거, 1차, 2차 및 3차 진료)에서 업무를 진행해왔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영국 전체의 이니셔티브인 'My Home Life Programme(이하 MHL)'의 전무 이사이다. MHL은 노인들을 위한 care homes에서 살고, 죽고, 방문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MHL은 런던 시립 대학이 Age UK와 협력하여 이끌고 있으며, Relatives and Residents' Association과 영국 내 케어홈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기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메이어 교수는 액션 연구, 질적인 방법 그리고 노인 요양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국제 노인 네트워크(Global Ageing Network)의 부회장이며 남호주대학교 및 호주 Federatio 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를 지내고 있다. 또한, 그녀는 International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의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 위원회는 Alberta 대학교와 Bradford 대학교에서 각각 노인 요양 시설, 케어홈 거주자들의 건강 증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그녀는 국립 요양원 연구 개발 포럼의 공동 설립자이자, 주거 복지 위원회와 병원 간호 위원회의 초대 위원이었다. 현재 King's Fund와 협력하여 요양 시설, 주택, 건강 및 사회 복지 분야의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있다.

나) 현장답사

본 팀은 2018년 7월 10일 영국의 런던대학교를 방문하여 줄리엔 메이어 교수님과 영국 노인복지 시스템과 교수님의 케어홈(Care home)²⁾ 중심 연구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영국에서의 노인복지는 정부 주도형보다는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 기관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국가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그 이유에 대한 첫 질문을 하자 영국에서 커뮤니티 케어나 자선 단체 활동이 활발

2) Care home: a private hospital or residence staffed and equipped to care for aged or infirm persons, Collins Dictionary 홈페이지,
<https://www.collinsdictionary.com/dictionary/english/nursing-home>(접속일 2018.07.31.)

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메이어 교수님은 밝혔다. 영국에서는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병원비는 턱없이 비싸고 집과 같은 공간에서 케어를 받기가 쉽지 않다. 부와 별개로 인간은 누구나 케어를 누릴 권리와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케어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케어홈(90%)은 정부와 별개인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케어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영국의 노인 복지 정책은 커뮤니티 케어에 집중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과 사회적 흐름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모든 인간은 그들 자신의 공간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집이라는 자신의 공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노인의 수가 청년의 수를 크게 넘어섬에 따라 청년 1명당 부양하게 될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생업과 더불어 가족 구성원인 노인 세대를 부양하기가 벅차다. 예화로, 교수님의 어머니도 지금 교수님과 떨어져 영국 북부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어머니는 평생을 살아온 그곳에 계속 머물고자 하셨다. 따라서 지금도 어머니는 사회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는 하지만 홀로 그 곳에 살아가신다. 커뮤니티 케어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가 집에 매일 방문하여 여러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는 보통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아닌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한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하므로 지원을 받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 전체 노인 인구의 45%는 집이나 케어홈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케어홈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어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만족도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서보다는 개인의 경제력으로 케어홈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시기가 더 이르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들은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 케어홈에 일찍이 머물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요양원에 대해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에 비해 영국 대중의 케어홈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케어홈에 대한 대중의 전반적인 인식은 부정적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체가 그려내는 케어홈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데, 케어홈 활동에 대해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주로 보도하는 매체의 비판적 태도가 대중에게 케어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체의 보도와는 달리 실제 케어홈에서는 끊임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고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의 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이처럼 케어홈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촉구하고 더 나은 케어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My Home Life(MHL)' (이하 MHL)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MHL 프로그램은 12년 전, 정부가 케어홈을 경시하고 자택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대두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케어홈 서비스의 감소를 우려했으나 메이어 교수와 여러 연구진은 케어홈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사회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가 케어홈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정치인들은 케어홈이 없는 세상을 목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진들은 케어홈이 노인 세대에 어떤 도움을 주고, 노인세대가 복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했다. 이 연구의 하나의 대주제인 <Developing best practice together> 항목에서는 ① Personalisation, ②Navigation, ③Transformation 세 가지 소주제가 있다. 개인화,

즉 Personalisation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하는가, 그들을 의사 결정에 끌어들이고 적극적인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가와 관련된다. 그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하는 문제임을 덧붙인다.

다음으로 Navigation의 주제는 헬스케어의 향상과 관련된다. 본 주제에서는 사람들이 케어홈이나 병원에 방문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하나의 관심사이며, 신체 건강 뿐 아니라 심적 관리에 대한 중요성 또한 역설한다. 더해서 안정적으로, 만족스럽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도 케어홈의 역할이며, 삶뿐 아니라 죽음도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Navigation의 주제들은 소셜케어와 헬스케어에 대한 이해를 모두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Transformation는 보다 노인복지에서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며 케어홈에서 활동하는 여러 스태프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대해 주목한다.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더 늙기 때문에 사람을 관리하는 스태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케어홈에서는 정말 중요한 주제다. 스태프들은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지녀야하며, 국민 의료 보험(National Health Service)과의 협력을 통해 케어홈의 헬스케어 서비스의 향상을 이룩하는 것도 이 항목에서의 큰 관심사다. 메이어 교수는 케어홈의 모든 서비스를 기존의 업무 방식이나 전형성에 얽매이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제고하는 것은 삶과 케어홈의 질 향상, 그리고 케어홈을 어떻게 조직하고 경영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된다.

더불어 <Focusing on relationships>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함을 그녀는 역설했다. 여기서 관계의 중요성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케어홈 안에서 거주하는 거주자 사이의 관계 뿐 아니라 거주자, 그들의 가족, 직원 간의 관계와 함께 요양원과 지역 사회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더해서 실제로 케어홈은 국민 의료 보험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메이어 교수의 동료 연구자가 진행했던 연구에서는 거주자, 거주자의 가족, 스태프에게 케어홈에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안전함을 느끼는 것, 소속감을 느끼는 것, 연속성의 감각을 인지하는 것, 목표 의식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MHL 프로젝트의 각 프레임워크가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여 발휘되었을 때 큰 힘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각들을 케어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거주자의 가족들과 스태프들 또한 만족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느낌들을 주는 것은 케어홈에 대한 소속감이며, 따라서 관계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거주자들의 문제가 아닌, 스태프와 거주자들의 가족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세 번째 항목인 <Being appreciative>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행위로 바꾸는 것을 강조했다. 만약 우리가 문제점에 집중했을 때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지 등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생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메이어 교수는 “동기”와 “감사”라는 다른 시각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적 접근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고무한다.

이러한 접근은 네 번째 항목인 <Having caring conversation>과도 연관되는데,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변화 과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류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호기심 갖기, 또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은 생각의 지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물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개인보다는 집단 지성의 시각이 더욱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집단 지성의 힘을 긍정하다보면 타협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모두의 의견에서 한 가지를 도출했을 때는 그 밖의 선택과 의견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선택을 거주자, 지역사회, 스태프 등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반으로 해서 완성해야 한다.

MHL 프로젝트의 이러한 네 가지 프레임워크는 서로 간의 중요성이나 순서의 차이 없이 동등하게 중요하다. 변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이 네 가지 항목의 조화를 통해 더욱 건강한 케어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또한 메이어 교수님에 따르면, MHL 프로젝트는 노인들에게 이웃들,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장려한다고 한다. 지역사회와 케어 주택의 협력 관계와 상호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현재 'Care Home Friends & Neighbors(FaNs)'(케어홈의 친구 및 이웃)(이하 FaNs)을 진행하고 있다.

FaNs 홈페이지에 따르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케어홈이 지역 사회와 의미 있게 연결되도록 돕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노인들 역시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지하고, 지지와 우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노인들이 거주하는 케어홈은 종종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지원이나 격려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FaNs는 지역의 케어홈들을 소중히 여기는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이를 바꾸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 예를 들어 개인, 조직, 학교, 청소년 그룹 그리고 기업 등이 케어홈과 어우러져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들과 함께 아이들이 웃고 즐기며 배울 수 있고,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 어르신들도 편히 방문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FaNs는 NAPA³⁾와 MHL과 함께 영국 전역에서 일하는 9개의 지역사회 조직들과 협력하여 많은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FaNs는 케어홈과 지역사회 친구 및 이웃과의 강한 유대를 형성하는 3단계를 제시한다. 1단계는 케어홈의 직원들이 케어홈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루브 조직들을 확인하고 감사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2단계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른 잠재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새로운 연결을 구축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퍼뜨리는 것이다.

메이어 교수님께서서는 케어홈의 재정이 독립적일수록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좋은 케어홈 관리자의 유무로, 사람의 역량을 강조하셨다. 왜냐하면 재정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관리자의 역량과 리더십이 케어홈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통 연구나 프로젝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하고 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MHL에서는 어떤 것도 설불리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 학술적으로 접

3) National Activity Providers Association. 케어홈과 함께 일하는 국가 자선단체.

근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되돌아봤을 때 흥미로운 점은 모든 과정이 사람의 힘에 의해 단계별로 발전되어 갔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시행단계에서는 노인세대가 진정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여러 단체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았다. 현재 영국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노인 자선단체인 Age UK의 전신인 'Help the Aged' 자선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뒤따라서 두 번째 단계는 이들의 이런 행보를 눈 여겨 보던 많은 케어홈 구성원들의 요청에서 시작되었다. 노인 요양의 다양한 분야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심오한 연구자료 보다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기에 MHL에서는 딱딱한 보고서보다 케어홈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통방법을 찾아야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MHL 잡지를 만들어 스토리텔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케어홈의 거주자, 그들의 친인척, 봉사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실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발견한 모범사례들을 18,000여개의 케어홈과 공유한다. 대중잡지를 쉽게 읽어 나가는 것처럼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와 함께 사진도 넣고, 만화도 넣고, 퀴즈나 활용하기 좋은 유용한 조언 등으로 구성하여 읽고 싶은 잡지로 만들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바로 사회참여 유도에도 연결된다. 잡지를 읽고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사회구성원들의 작은 참여는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MHL에서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한 노인 요양의 좋은 사례들을 수집하고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은 것들을 어떻게 나눌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이들을 어떻게 포섭해야할지 또한 고민하며 많은 케어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개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중요하다.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해주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시사하지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 노인들과, 봉사자들과 만나 그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베풀고 있는지 묻는다면 탁상공론에서는 알 수 없었던 유용하고 창의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연구에서 연구 조사보다는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더 중요시하고 무엇도 예상하지 않았던 이유다.

노인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선단체도 있지만, 케어홈이 영리단체라고 생각하여 케어홈에 지원을 원하지 않는 자선단체도 많이 있다. 실제로 영국 내에 영리사업을 하는 케어홈이 비영리 케어홈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영리, 비영리에 관계없이 케어홈 이용자들은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MHL에서는 이런 자선단체들과 시민들이 영리, 비영리를 떠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라는 핵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금전지원뿐 아니라 노인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이미지 메이킹에 관심이 있는 자선단체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케어홈이 주는 노인의 허약함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흥미를 갖기 쉽지 않고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자선단체들은 치매와 같은 질병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정부가 치매환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에 정치적 시류에 맞춰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인 고독문제에 정치적 사안이 옮겨가면 고

독사에 초점을 맞추는 자선단체들이 혜택을 받았다.

우리는 한국에 비해 영국에서 자원봉사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메이어 교수님의 생각은 영국 또한 자원봉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자원봉사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활발한 봉사문화를 가진 미국에 비하면 절대적인 숫자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이미지가 좋은 곳을 선별적으로 찾아간다고 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아픈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임에도, 케어홈보다는 병원에 봉사자가 눈에 띄게 많다. 케어홈이 주는 이미지가 병원이 주는 이미지와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봉사자들이 이미지를 따지기보다 그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 자선단체에서는 자신의 원래 집에서 노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자원봉사자가 티타임 등 그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봉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 팀은 세대 간 교류가 노인문제의 큰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교수님에게 세대 간 교류의 힘에 대해 질문했다. 메이어 교수님은 노인문제 해결에는 세대 간 교류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성장하며 늙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된다. 고령화가 심화되어 감에도 사회가 그만큼 노인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이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어린 시절부터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세대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세대 통합의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두려움이 없는 사회일 것이다.

세대 간에 지역사회 참여를 활발하게 하고 싶다면, 먼저 양쪽에서 그 교류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자녀들은 어른과의 접촉을 통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다른 또래보다 적어 학습부진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케어홈 노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도 했다.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요구가 맞는 지점인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는 치매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 개편사례를 들 수 있다. 케어홈 봉사자와 이용자, 그리고 다른 노인세대들은 학교 교육과정의 교재집필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치매에 대해 현실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학부모들의 반응 또한 매우 긍정적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에 대해 매번 자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주어야 좋을지 골머리를 앓았는데 치매에 대해 학교에서 더 정확하게,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배우니 아이들의 수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앞선 두 예와 같은 시도들은 전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만, 사실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그 긍정적인 영향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세대통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소수자의 입장에 놓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해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공론화시킨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늙어감에도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짐짓 자신의 일이 아닌 척 한발 물러선다. 노화, 노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3) University of the Third Age(U3A)

가) 사전조사

U3A는 1981년에 시작된 교육 운동으로, 1990년대 초에는 U3A가 2주마다 열렸다. U3A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성장했다. 2008년까지 회원은 매년 11% 씩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회원수가 25만 명을 넘어섰다. 오늘날에는 영국 전역에 1000개 이상의 U3A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4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다.

U3A는 본 기관의 모토를 “U3A의 경험을 통해 모든 제3의 나이의 사람들이 평생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제3의 나이’는 특정한 생물학적인 나이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 ‘제3의 나이’란 대신 본인이 다니던 직장, 즉 정규직을 은퇴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또한 U3A는 비종교적 및 비정치적 단체로서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1) The Third Age Principle, 2) The Self-help Learning Principle 3) The Mutual Aid Principle”가 그것이다.

회원들은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주제와 활동을 다루는 이익 집단(interest group)을 스스로 형성한다. U3A에서는 배우기 위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도 않고, 배운다고 해서 자격증을 주지도 않는다. U3A에서의 배움은 오직 배움 그 자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U3A에 대한 회원들의 주된 동기는 배움의 즐거움이다. 또, 회원 간에는 교육자와 학생이라는 구분이 없다. 누구나 교육자가 될 수 있고 학생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은 모두 동등한 회원이다.

영국에 있는 각 U3A는 운영상 독립적인 상호 지원 조직이다. 하지만 동시에 U3A운동의 지침을 준수해야하는 The Third Age Trust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모든 교육 서비스는 무급으로 이루어지며 회원들의 회비로 U3A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 자금을 지원받는다.

나) 현장답사

본 팀은 2018년 7월 11일 영국의 University of the Third Age(이하 U3A) National Office를 방문하여 U3A 지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Ian Furnell씨와 National Office에서 근무하는 Sophie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U3A 모델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하지만 퇴직한 사람들에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배움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많은 U3A 모델 중에서도 영국 U3A는 성공적이다. 1982년에 출범하여 2018년 현재까지 살아남은 데다 지난 30여년간 매년 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 방식의 운영, 재취업이나 재기가 아닌 순수한 배움의 즐거움과 사회적 교류만을 지향하는 뚜렷한 목적성 등 도전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모여 일구어 낸 성과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지부를 설립하고 회원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도 한몫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자생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고집해온 자원봉사 방식에서 나온 경제적 자립 능력이다.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자생하고 있다. 모든 회원은 U3A 구독활동을 통해 3.5유로를 매년 지불한다. 회원 약 400,000명에게서 얻는 이 운영금은 연간 140만 유로 정도로 National Office 운영과 사무실의 홍보, 출판 등 여러 활동을

하는 데에 이용된다. 운영자금의 사용내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U3A는National Office와 영국 전역에 퍼져 있는 지부로 운영이 되는데, 본 팀이 방문했던National Office에서는 출판활동, 각 지부에 조언 활동, 홍보, 새 지부 모집 등의 것들을 담당한다. 사무실에는10명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 있다.다른 국가에도 U3A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영국의 U3A의 방식에서는 개개의 지부가 전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National Office에서는 각 지부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U3A 전체 차원에서의 위원회도 있지만 각 지부별 위원회도 직접 선출하고 활동을 관리하는 사람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National Executive Committee 구성원은 전체U3A 지부들에서 선출하고 사무역할과 대표역할을 맡기지만 기본적으로 모든U3A지부는U3A의 기본정신과 자원봉사 운영방식, U3A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해나간다. 구성원들에 의해 신임받아 선출된 위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부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구성원을 연결하여 U3A의 정신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한 주제에 대해5~10명의 희망자가 있으면 새로운Interest Group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통 모임 리더를 선출하고, 프로그램을 모두가 함께 구상한다. 규모가 작은 그룹은 회원들의 집에서 번갈아 모이곤 하고, 규모가 큰 그룹은 마을회관이나 교회 강당과 같은 장소를 빌려 모임을 갖는다. U3A는 강의와 같은 분위기보다는 차 마시는 모임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모임에서 직접 그들의 최적의 인원정원을 정하고 그보다 수요가 많으면 같은 주제의 새로운 모임을 만든다. 새로운 U3A지부는 지역의 충분한 수요가 있을 때 창설한다. U3A에서는 새로운 지부에U3A의 정신과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단체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기 위해 회원들을 교육시켜 파견한다.

U3A본부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을 회원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각 그룹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제지하지 않는다. 어떤U3A지부는 일년 단위로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U3A지부는 자연히 해체될 때까지 계속해서 모임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자원봉사자가 강의를 진행하는데, Interest Group leader라 하는 이 강의자는 보통 그 그룹내에서 정한다. 주로 경험이 많은 회원이 그 그룹의 리더를 맡는다. U3A의 motto 중 하나가 바로 누구나 그룹에서 강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례 모임이나 학습의 날, 회의와 같은 규모가 있는 연설을 준비할 때는 발표자가 보통 위원회의 개인 추천으로 정해질 때가 많다.

위에서 언급했듯 세부 운영규칙이나 활동 내용은 각 지부의 구성원들이 회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기에 모든 U3A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U3A 지부들이 가진 특성으로 U3A에 대해 설명하자면 U3A는 은퇴자와 부분적으로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단체이다. 나이제한은 두고있지 않고 모든 은퇴자들에게 열려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60대에서 70대에 분포하고 있고, 소수의 40-50대의 젊은 은퇴자와 80-90대, 100세를 넘긴 회원이 있다.

모든 U3A 지부가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기획한 것은 모든 회원의 관심사를 위한 정기 모임이었다. 보통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월례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그날의 발표자는 자신의 인생경험이나 흥미, 관심사를 월례 모임에 온 회원들과 공유한다. 단체 이름이 대학교라는 것에서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라 종종 오해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유명작가, 여행기, 정원 가꾸기 등 그저 자신이 재미있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관심사부터 학술적 주제, 신체활동까지 그저 자신이 아는 것을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는 발표자의 삶과 경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지고 광범위해 질 수 있다. Ian씨가 속한 U3A 지부에서는 550명의 회원이 있는데, 대략150여명이 월례 모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월례 정기모임 이외에도 개개인의 U3A 활동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Interests Group'이 있다. 이 Interests Group이야말로 지부마다 크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지부의 크기 및 회원수에 따라서, 그들의 관심사와 자원봉사자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Ian의 지부의 경우 약 65개의 주제를 다루는 90개의 그룹이 있다. 모임의 크기는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통 한 테이블에 둘러앉을 수 있는 인원수 정도이다. 같은 주제에 더 많은 인원이 몰리면 또 다른 모임을 하나 더 만드는 식으로 진행한다. 개개인이 이 그룹활동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사회적 교류이다. 실제로 모임을 계속 활발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회원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이다.

Ian씨는 자신의 U3A 지부에서 와인 시음 모임과 런던 시내 탐방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다. 런던시내탐방은 인기가 많은 모임이라 9개의 서로 다른 모임이 있다. 런던 시내 탐방 모임을 예시로 U3A의Interests Group이 운영되는 방식을 알아보자면 일단 그 모임의 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진다. 시내탐방의 경우, 다 함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12~16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진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각 모임마다 자원봉사자로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있는데 일종의 강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모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도 한다. 보통 경험이 많은 회원이 하지만 누구나 이 리더가 될 수 있다. U3A의 강사는 여타 다른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더 젊은 세대(1st age와2nd age)에게는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3rd age에게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저 모두가 자신의 지식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모두 거리낌 없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모토이기에 리더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시내탐방 모임에서는 모두가 탐방루트를 함께 계획하고 역사적인 곳들을 돌아다닌다. 역사적인 곳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없고 학술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U3A가 추구하는 것은 학술적인 것보다는 함께 즐기는 것이다. 그 장소에 얹힌 재미있는 일화나, 신비한 비밀을 탐방하고 경치도 감상하고 함께 재미를 위해 즐기는 것이다. 문화유적지, 발전 산업 탐방, 산업혁명 관련한 곳, 박물관 등등 다양한 곳을 답사한다. 이 과정에서 사전조사, 실제 답사에서 얻는 지식도 분명히 존재한다. 보통Interests Group이 모임을 갖는 주기는 달에 한 번 정도이지만 만남의 횟수와 주기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임 참여자들에 달려있다. 더 많이 만나서 무언가를 더 배우고 싶다면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U3A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교댄스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직접 회원들을 교습하지 않고 DVD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DVD를 스크린에 틀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회원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배우고 연습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U3A에서의 배움은 경쟁이나 지식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재미를 위한 사회적 이벤트로서 존재한다. 또한 사교댄스와 같이 특정 공간이 필요한 수

업은 그 수업 회원들이 해당 공간을 대여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보통은 그 수업 단체의 리더가 정기적으로 걷는 그룹 운영 비용에 대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수에 따라 공간의 필요도가 달라지고, 공간 대여 여부는 회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어떤 경우에는 큰 단체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아 공간을 제공받는 등의 경우도 있다.

U3A에서의 활동은 모두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움을 주는 위치이든, 얻는 위치이든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사교 클럽 등 여타 사회 참여 활동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므로 비용은 회원들에게 있어 큰 고려대상은 아니다.

Interests Group과 월례모임, 다른 행사를 통해 회원들은 사회적 교류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노력으로 다른 이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것, 은퇴 이후에도 자신이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데 적극적이다. 무보수에 자원봉사자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U3A가 과연 가능할지에 의심을 품었던 본 팀은 이런 생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회원들은 같은 관심사나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만나 사회적 교류를 갖는 것에 매우 큰 즐거움을 느낀다. 사회적 교류 측면에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소속감은 U3A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다. 또한 연회비자체도 10~30파운드로 큰 돈이 절대 아니다. 굉장히 장벽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원하는 사람은 모두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고, 회원들은 대부분 직업연금이나 정부에서 주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것이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또한, 영국문화에서 가진 것을 나누는 자원봉사는 이미 너무 익숙한 부분이기에 자원봉사로 단체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Ian씨는 덧붙였다.

사회적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집안에만 있는 노인들을 집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한국이나 영국이나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다. U3A도 영국 전역에 많은 지부를 퍼뜨리고 있고, 회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U3A가 닿지 못하는 곳에 분명히 사회로 들어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거나, 자신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 등으로 망설이는 사람들, 혹은 아예 U3A와 같은 단체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잘 적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 올 수 있도록 이들의 적응을 돕는 greeter 역할의 자원봉사자도 운영하고, 고독사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지만 U3A 역시 완벽한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다만 이렇게 노력해 나간다면 작은 시도들이 모여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 주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Ian과 Sophie가 덧붙였다.

U3A는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위원회는 National Magazine이나 신문 등의 출판물을 간행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진다. 또 National Office 차원이 아니라 각 지부 차원에서도 그들만의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간행이 많다. 온라인 홍보의 일환으로 U3A에서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몇몇 영상을 함께 시청하였는데, 홍보영상의 구성은 현재 의장이신 Pam Jones씨의 U3A에 대한 간략한 설명, 개방성과 자율성의 강조, 개인적으로 U3A 활동을 통해 얻은 것 그리고 가입 방법에 대한 안내 순서였다. 많은 매체를 통해 다방면으로 U3A에 대해 알리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 현재 U3A에 있는 몇몇 그룹 활동(와인 감상 그룹과 요가 그룹) 영상을 시

청하기도 했다.

U3A는 성인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지만, 세대간 교류 활동 역시 존재한다. 몇몇의 지역 U3A들은 학교나 노인 케어 주택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함께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케어 주택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등을 진행한다. 또, 학교에서는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한다. U3A에서는 가난하거나 이민자인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지역 지부 차원의 U3A에서 진행하며,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위해 진행된다. 더해서, 이를 통해 세대 통합이라는 부차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세대교류를 통해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세대 간 인식의 차이와 갈등은 한국과 영국이 비슷하게 가진 고민이었다.

U3A의 한 가지 문제점은 U3A의 평균 연령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퇴직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U3A 회원들의 평균 연령대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싶은데 더 젊은 세대를 모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은퇴한 사람들을 U3A의 회원으로 영입하는 것이 본 기관의 지속적인 목표다. U3A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다. U3A는 시작 이래로 발전해왔지만 점점 U3A도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조직이 늙어가며, 비교적 젊은이들을 유입시키기 어려운 것이 고민이라고 이안씨는 말했다. 또, 새로운 회원들을 계속 모아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흔히 ‘배움’을 교수자와 학생이 분명히 나뉘져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U3A에서 배운 점은 배움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과 각자가 지닌 생각과 지식은 매우 다르다. U3A에서는 본 기관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거나 엄청난 지식을 전수하고자 만든 단체가 아님을 늘 강조한다. 그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각자가 가진 지식과 세상을 넓혀 나감으로써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3. 독일 노인 공동체 탐사

1) Haus der Familie

가) 사전조사

독일 사회의 고령화 심화, 저출산, 가족형태의 변화(핵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인부부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따라 독일 연방 정부는 사회적인 변화와 소통, 세대갈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세대교류를 위한 다세대의 집(Mehrgenerationenhaus)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06년에 ‘모두가 한 지붕아래’라는 취지로 ‘다세대의 집 행동강령 프로그램’을 공포하고 각 센터에 자금을 지원했다. 현재 독일 전역에 약 540여개의 다세대 교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 사회의 교류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세대 교류센터는 세대교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대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노인돌봄, 통합과 교육, 가사근접형 서비스, 자발적 참여자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주도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세대교류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MGH는 크게 다섯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세대가 한 공간에 모여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열린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개방성). 또한, 농촌과 연방도시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설립되어 있고, 국가 지원 프로그램임에도 복잡한 행정 절차에서 다소 벗어나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접근 용이성).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1700여개의 단체 중에서 공익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500여개의 단체만이 엄격하게 선별되었다(공익성). 다세대주택의 60%정도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연령대의 만남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 이상의 다세대주택에서 3세대가 함께 어울린(통합성).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서로 '주고-받음'의 구조를 통해 프로그램 이용자로 하여금 자존감을 갖도록 한다(자존감).

센터 입구에는 보통 로비와 카페테리아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이곳을 열린거실 혹은 오픈카페라고 부른다. 주민들의 일차적인 만남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함께 모여 이야기와 음식을 나누며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공간이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과거에 친척들과 교류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언제나 들를 수 있는 장소이다. 이 외에도 센터별로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실, 어린이방, 컴퓨터실, 유아실, 오픈키친, 그룹실, 음악실, 교육실, 노인 서비스실 등의 다양한 활동 공간이 갖추어져 있다. 이 공간들은 프로그램과 연계해 젊은 세대와 고령자가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아침과 점심, 커피와 케이크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카페, 6개월 이상의 유아를 위한 데이케어, 밤에 활동적이 되는 치매환자를 위한 나이트 카페, 서비스의 교환,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 교실, 젊은 부모가 고령자의 경험을 전해 받는 코스, 다세대가 함께하는 연극, 댄스 등이 있다.⁴⁾ 지역시민들의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가 소정 있으며, 센터는 이용자들에게 스스로 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인 돌봄이나 아이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열린 거실의 카페에서 일하는 노인의 경우 급여는 차비 정도로 매우 적으나 이런 노동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얻는다. 또한 이런 운영에서의 일거리 제공뿐 아니라 센터안의 공간을 세주어 직접 세탁소나 상점운영, 가족서비스 등을 행하게끔 하기도 한다.⁵⁾

MGH는 크게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생활하는 다세대를 위한 주거시설과 다세대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이용시설인 주간센터로 분류할 수 있다. 거주시설 중에는 난민을 위한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곳도 있다. 센터 개설은 이웃교류센터, 마더센터 등 유사한 용도였다가 다세대 주택으로 지정 받은 경우도 있고 은행, 공장건물 등을 리모델링하여 센터로 개설한 경우도 있다. 나이와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가 모이는 장소라는 모토에 맞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존의 공간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특히나 오래된 건물일수록 베리어 프리 구성이나 에너지 절약 전략 등 건축적 기준에서 부족한 부분도 보인다.

정부에서는 MGH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6년부터 5년간 매년 4만유로(5천 8백만 원)의 운영지원비를 지급했으며, 3만유로는 독일연방정부가, 1만유로는 지자체가 부담했다. 2012년부터 3년간은 다세대교류센터 행동강령 프로그램 II를 실시하며 연 4만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처음에는 5년 후 자립할 것이 조건이었으나, 2016년까지

4) 박혜선(2013), 「세대교류형 지역가족복지센터의 공간 디자인」, 『대한건축학회』, 제 57권, 제 9호, 58p.

5) 윤빈호(2012), 「세대프로그램으로서의 독일 '다세대주택' 사례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9p.

연장지원이 결정되었다. 지원 받는 4만 유로의 절반가량은 인건비를 위해 할당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에서 센터장 내에서 반나절 근무를 위한 월급과 강사로, 자원봉사자나 재능기부자에 대한 약간의 실비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비의 수입원은 앞서 언급한 MGH 지원금(식음료비)뿐 아니라 공간임대, 기부금, 시지원금(임대료와 관리비), 재단지원, 프로젝트 지원금 등이 있다. 설립과 운영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운영비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확보되지 않고, 자립이 기본원칙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⁶⁾ 2016년까지 진행되던 행동강령 II를 2017년에 federal multi generation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federal program으로 운영되며 4만 유로를 매년 지원받는다. 3분의 1은 연방정부에서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각 센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이나 주 이용자층과 그 수는 상이하다. 잘츠기터시의 3층규모의 큰 MGH의 경우 일일 600명의 이용자가 방문하기도 한다. 청소년, 중장년층, 고령자가 골고루 분포하는 곳도 있고 고령자와 유아가 많은 곳, 중장년층이 많고 고령자가 적은 곳도 있다.

MGH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 수보다 자원봉사자의 수가 훨씬 많은데, 자원봉사자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의 강사로서 일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저조하면 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연방자원봉사역(Bundes Freiwillige Dzeust)라는 제도가 있다. 시간당 1유로의 저렴한 인건비가 지불되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한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상당 수 확보되어 있다. 다양한 제도나 기업의 협조로 유,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MGH 운영과 유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위를 통해 보았을 때, 결국 MGH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각각의 능력을 제공하고 필요로 한 능력들을 받을 수 있는, 지역현장에 맞는 서비스 전달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나) 현장답사

본 팀은 2018년 7월 12일 Das Mehrgenerationhaus Bonn(이하 DMH)에 방문하여 HDF Team에 소속된 도리스 바키크(Doris Bakic)씨, 스테파니 콜버그(Stephanie Kolberg)씨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시설을 둘러본 뒤 DMH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상점인 Kleiderkammer에도 방문하였다.

DMH는 House of family(HAUS DER FAMILIE)와 Multi Generation House(Mehr Generationen haus),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기관이다. 이 곳에서는 가족의 형성과 관련된 여러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1963년, 본 기관의 창립 당시에는 mother school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현재 이 공간이 아닌 가까운 교회에서 첫 수업을 하게 되었다. 이후, 1966년에 이 기관을 교육 기관인 'HAUS DER FAMILIE'로 개정하였는데, 이 곳에서는 가족의 형성과 통합에 집중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가족 통합 교육을 지원했다. 2007년에는 “본 기관에서 노인세대를 통합하고자 한다면, 독일 내에 진행중인 Mehr Generationen haus 프로그램에 참여

6) 박혜선, 남윤옥(2016), 「지역사회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서의 독일 다세대교류센터의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36권, 제 2호, 158p.

하지 않겠냐”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멀티제너레이션 하우스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성격이 한 지붕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관이 내세운 사명으로는 다양한 만남(Facilitating encounters), 국적과 종교를 뛰어넘은 통합(Integration of all Nationalities and Religions), 평생 교육(Motivation life-long learning)과 도움과 지지(Offer support)가 있다. 이 곳은 모든 세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인종이 함께 살아가도록, 또 교육 및 여러 분야에 대한 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들은 ①가족 ②건강 ③삶과 죽음 ④문화와 예술 ⑤언어 ⑥성인 교육 ⑦가정경제가 있다. ‘가족’ 측면에서 본 기관은 가족 통합 교육을 진행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통합과 이해를 촉진한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는 임신한 여성·노인·아이들 등 각 세대를 위한 특정한 운동 교실을 운영한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노인세대를 위한 “Brain yoga”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치매와 같은 정신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삶과 죽음’의 측면에서는 노인세대의 유언장 작성에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주기도 하는 등 삶과 죽음에 대한 조언을 하곤 한다. 더해서, 종교활동과 영적 명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 측면에서는 세라믹 공예와 재봉,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 세대에 걸쳐 진행하는데, 크리스마스 4주 전쯤 누구나 이런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연다. 그 날은 어떠한 조건 없이 누구나 와서 파티를 즐기고, 함께 노래하며 수공예·재봉 등 여러가지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언어와 관련하여 본 기관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민자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주요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대다수는 독일의 난민과 여성 이민자이다. 여성 수강자의 경우 수업 시간에 옆 방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끔 한다. ‘성인 교육’도 ‘언어’와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가정 경제’ 측면에서는 난민을 포함한 전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요리를 하고 서로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네는 등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

DMH의 운영자금은 독일연방정부와 주와 시(Land NRW(North Rhine-Westphalia 주), Town of Bonn)로부터 각각 받는 보조금과 강의 수강료, 여러 협력 단체의 지원금, 개인 기부금, MGH로 선정되기 이전에 패밀리 하우스일때부터 협력했던 지역의 교회(Ev. Thomas-Kirchengemeinde)로부터의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수강료의 경우 20~35유로(한화 약 25,000원~45,000원) 사이에서 수강자 본인이 얼마를 낼지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수강자들은 강의에 만족하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내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여 35유로보다 더 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실비 수준의 강사료와 직원의 월급, 식음료비와 같은 운영비 등으로 쓰인다.

현재 DMH에서는 이용자 확대를 위해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는 소책자와 홍보자료 간행이다. DMH의 개설강좌와 이용가능 혜택 및 프로그램이 실린 소책자와 홍보자료를 포장하여 지역의 공공기관, 교회, 병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보내면 이 자료를 해당 기관에서 비치해준다. 두번째는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이다. 특별한 행사나 기획활동이 있으면 1주 전 정도에 지역신문에 기사를 낸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입소문이다. 이곳에 와서 좋은 경험을 하고 간 사람은 육아 고민을 하거나 가족상담을 원하는 친구나 이웃 등에게 DMH

를 소개한다. 이밖에도 1년에 한번 ‘Open House Day’를 운영해서 센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MGH는 도시의 규모나 이용자 수의 규모나 이용자의 성격에 따라 센터의 크기와 활용공간의 종류가 달라진다. 본 탐사 팀이 방문하였던 독일 서부의 소도시 Bonn에 있는 MGH인 DMH는 대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3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지하층과 1층, 2층이 이용자들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에는 다양한 세대가 만나 다과를 함께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도 보낼 수 있는 Open Café(열린 거실)이 마련되어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컴퓨터도 놓여있고, 센터 강좌에서 이용자들이 만든 작품도 전시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센터의 강좌를 진행하는 시간강사를 위한 교무실, 공용주방,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작은 체육관, 세미나룸이 있었다. 공용주방은 최대 15명 동시사용이 가능하며, 주방에서 만든 요리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다이닝 룸도 딸려있다. 세미나 룸은 다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강좌를 하기도 하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1층 이외에 다른 층에도 여러 개가 있었다. 2층에는 아이들의 놀이방, 목재공예실, 재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재봉틀이 있는 공간, 세미나 룸들이 있었다. 지하에는 산후 조리를 위한 요가 등 체력 프로그램을 위한 체육관과 다른 세미나 공간 등이 있다.

DMH에는 7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고, 150명의 강사와 12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다. 연간 이용자는 10,000명이며 연간 강의 시간은 8,200시간, 연간 운영강의와 행사는 약 700개이다. 많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강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비해 직원들의 수가 적고 자금이 충분치 않기에 DMH에서 자원봉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DMH의 자원봉사 시스템은 지역 노인의 사회참여의 핵심이다. 9:00-12:00, 15:00-18:00로 한정적인 사무실 운영시간에 비해 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은 오후 10시-11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의 퇴근 이후 오후 8시까지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사무실을 지킨다. 강좌수강등록과 변경, DMH 이용 문의를 처리하고 다음날 정규직원들이 출근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메모를 남긴다. 이후 센터 소등 및 창문 닫기, 전기점검 등 뒷정리를 하고 마지막 강좌를 하는 강사에게 문단속 할 수 있도록 열쇠도 전달하고 퇴근한다. 이들은 교통비 정도를 지원받거나 아예 금전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받지만, 지역사회에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며 기꺼이 큰 책임을 맡아주고 있다. 또한, 150명 이상의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현재 센터에는 150명 정도의 교사들이 있고, 이 교사들은 좋은 질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교사들을 위한 추가 교육과 자격 유지 수업을 제공하기도 한다.

DMH 운영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정규직 지원은 함께 모여 업무에 관해 논의하는데, 주요하게 논의되는 업무는 총 6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공용 개방 공간 사용(Meeting Points)에 관한 논의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센터에는 1주일에 한 번씩 ‘Coffee Contact’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은 커피나 차를 마시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원하는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고 서로 알아가

며 지역 주민들이 통합될 수 있는 자리이다.

또, 두 번째 예로 센터의 입구에 신문을 읽고 차를 마시며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용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무료이다. 이 공간을 방문하는 한 남성은 자발적으로 주 1회 컴퓨터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작은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지지(Support)이다. 예시로, 아이를 갓 출산한 산모들의 회복을 위한 특별한 체조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산모들이 체조 수업을 받는 동안 어린 아기들은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이 돌봐 준다. 독일은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조부모와 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 무료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어르신들은 어린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자유 시간의 제공(Offers for the free time)인데, 이는 여가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께 산책하기, 등산하기, 관광하기 등이 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여가 활동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중고품 가게(Second hand shop) 운영이다. 가게의 이름은 'Kleiderkammer'이고 주 4회 운영된다. 3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며 한 명의 정규직원이 봉사자 팀을 관리한다. 누구나 와서 옷이나 물건들을 기부할 수 있고 물건들은 매우 싼 값에 팔린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기도 하고 수익금 역시 돈이 필요한 곳에 전달된다. 다섯 번째는 상담과 정보 제공(counselling, Information)이다. 하나의 예로, 어르신들로 구성된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이 주 1회 진행된다. 이는 대부분 은퇴한 전직 교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이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1대 1로 지도해주는 것이다. 봉사자들은 주로 학생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독일어를 가르쳐준다. 대상자들은 주로 소득이 낮은 가정이거나 난민 가정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난민과 함께 일하는 것(Work with refugees)이다. 독일에 와서 거주하기 시작한 난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어르신들이 도와주는 활동이 있다. 어르신들은 직접 난민 가정과 동행하여 여권 발행, 병원 방문, 학교 등록, 구직 활동 등을 도와준다.

실제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우리는 스테파니 콜버그씨와 함께 Kleiderkammer에도 방문하였다. 가게에서는 1명의 정규직 직원과 35명의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의 연령대는 19세에서 84세까지 다양하였고 대다수 은퇴한 여성들이었다. 일주일 중 4일을 가게를 여는데 매일 10-12명의 여성과 2명-4명의 남성 자원봉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로 생각하면 일종의 옷 베품시장이었지만, 실제 가서 보니 브랜드의 비싼 옷들도 많이 있었고, 1-5유로 사이로 저렴하게 옷을 판매하고 있었다. 상태가 굉장히 좋은 옷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직접 입어볼 수 있는 피팅룸과 자원봉사자가 상주하는 계산대까지 일반 옷가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끔하게 갖추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 팀은 이곳을 견학하며 직접 쇼핑도 해보았는데, 젊은 세대의 취향인 옷들도 많이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스테파니씨와 가게 관련 업무에 관해 의논하는 모습은 열정이 넘쳤다.

DMH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꼽아본다면 자원봉사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받는 산후 건강관리와 'Wellcome'이라는 이름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독일어가 모국어 가 아닌 가정의 아이를 위한 독일어 학습 도움이 있다. 이 세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다

양한 세대가 서로 도우며 상생할 수 있고, 노인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문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직업형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세대통합이 가능한 것이다. 언뜻 보면 노인세대 통합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노인세대이다. 모든 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이 노인세대이다. 첫번째 프로젝트인 아이를 맡아주는 보육프로그램의 경우 노인 자원봉사자는 엄격히 선정되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센터 내에서 보모역할을 수행한다. 이 덕분에 출산 후 산후조리 피트니스 이용여성이나,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서 강의 수강이나 외부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다. 두번째 프로젝트는 아이 출산 이후 첫 세 달에 교육을 받은 노인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다. 출산 직후는 부모가 육아를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이며, 본인들의 시간을 가지기도 힘든 시기이다. 그래서 산후 3개월 동안 1주에 1-2번 출산가족을 찾아가 부모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혹은 육아문제에 조언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문 보육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2) BAGSO

가) 사전조사

바고는 1989년에 노인세대의 경제·정치·사회적 권익 신장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 사회, 국가 사무소 및 특정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의 요구도 고려하여 노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바고의 노령화 국제정책 사무국은 노인과 관련된 국제 정책의 발전 방향 및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시민사회, 특히 노인들의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이바지한다. 독일 내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두고 본 단체를 노년층을 위한 노인 지지 단체(Lobby Organization)이라고도 일컫기도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도전의 맥락", 즉 노인이 사회의 새로운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처음으로 내세운 개척자로 소개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바고는 우리 사회의 노인들에게 발언권을 준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바고를 평가하였다.

바고의 영향력은 독일 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양한 유럽 단체와 교류하고 소속되어 있기도 하다.

바고는 역량, 전문 지식 및 경험이라는 세 가지 타이틀을 내세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이 요소들을 실질적인 생활의 차원에서 실천하도록 하고, 노인들이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한다.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아직 문제시되지 않았거나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주제들을 격려하고자 한다. 바고는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노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강력한 정치적 지지체로 인정받고 있다.

나) 현장답사

본 팀은 7월 13일 BAGSO의 사무실에 방문해 ‘the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Policy on Ageing’ 프로젝트의 장을 맡고 있는 실케(Silke Leicht)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함께 실제 BAGSO의 산하기관중 하나인 ‘Tat und Rat’의 활동현장에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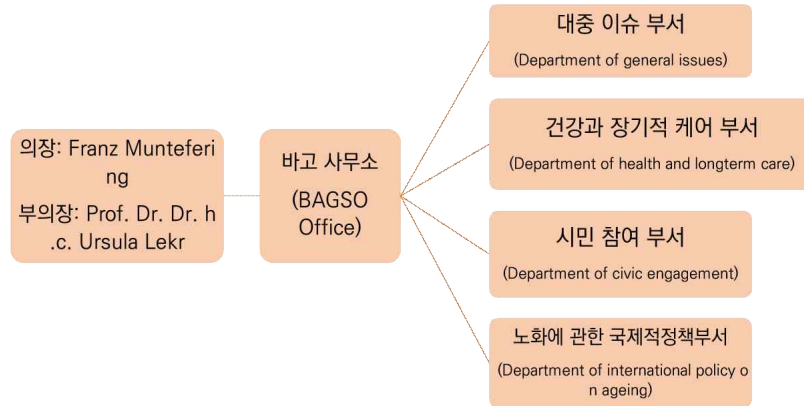
여해보았다.

바고는 1989년에 설립된 독일 노인 관련 단체들의 통솔 기구로 노인 협회, 환경 단체, 무역 협회, 사회복지 단체, 교육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조직이다. 독일 내에서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와도 긴밀히 연결된 기관이다. 바고는 1989년 11개의 시니어 단체가 서로 힘을 모을 필요성을 느낀 이래로 성장하여 현재는 117개의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의 11단체는 현재의 바고와는 비교되지 않는 매우 소규모의 단체였지만, 출간물 간행과 같은 지면 활동보다는 좀 더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눈에 띄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고, 현재 독일 노인의 날과 같은 행사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일어난 Senior Running Campaign도 이들의 행보에 도화선이 되었다. 독일 연방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 사람을 만나고 이들이 사회에서 좀 더 활발하게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점차 눈에 띄게 불어나며 현재의 바고가 되었다.

바고의 산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 대표 단체이거나, 직접적으로 노인으로 구성되어 노인을 대표하지는 않더라도 노인 세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하거나, 학술활동을 하는 등 시니어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인세대가 아닌 단체들은 투표권을 갖지는 않는다. 바고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노인들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노인 단체뿐이다. 일년에 한번 바고에서는 매년 10월 멤버 회의를 가지는데, 매년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모든 투표권을 가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임 받은 위원회가 결정하고 멤버 대표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안이 굉장히 많고 전문가의 소견을 요하는 안건도 많기 때문에 바고 임원 내에서 결정하고 공문을 각 산하기관에 보내면 해당 결정에 피드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기도 한다. 결국 모두가 같은 정도로 의견개진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소외되는 의견이 없도록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할 것이다.

또한 바고에서는 산하기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에는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사실상 모든 단체를 대변하는 통솔기구이기 때문에 무언가 제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렵기도하고 바고의 존재 목적 자체가 작은 노인들의 노력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지 이들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노인단체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하기 힘든 다양한 이유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입된 단체가 활동을 게을리 한다든지 하는 갈등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바고는 산하기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풍족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를 통해 이어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바고를 통해 국제적인 노인 현안에 대해 책자를 공유받고, 자신들을 대신해 의견을 개진해주기도 하는 것 등에 고마워하고 참여하고자 노력한다.

바고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바고 조직도

바고가 옹호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스스로 결정하는 노년의 삶 (Self determined life in old age)	노인세대가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삶,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노화에 대한 현실적인 이미지 (A realistic image of age in society)*	노인세대에 관한 폭넓은 이미지를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단편적인 부분이 아닌 모든 방면을 아우르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의 활동적인 면모 뿐 아니라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다.
세대 간의 연대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세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노인세대 소비자들의 관심 (Interest of older consumers)	예시로, 의료 서비스가 있다. 노인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처방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많은 회사들과 협력한다.
건강한 노화; 높은 수준의 건강 관리 및 장기적 케어 (Healthy ageing; high-level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사회적 평등과도 관련이 있다. 돈의 유무와 관련 없이 모두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또 현재의 복잡한 의료체계를 벗어나 더 단순하고 알기 쉬운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 통합 및 참여 (Social integration and participation by older people)	노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지역사회, 정부 등에 로비를 하고 있다.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다.

<표 1> 바고의 옹호 주제

바고는 또한 독일을 대표하는 독일 노인 조직이지만 유럽차원의 단체에도

소속되어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조직이다. 바고는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속해 있어서 국제적인 회의에 참석해 노인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다른 단체들과 교류를 한다. 또한 유럽사회의 AGE Platform Europe에 속해 있기도 하다. AGE Platform Europe은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145개 기관이 참여하는 유럽 네트워크이다. 설립 목적은 유럽 연합 내 50세 이상인 190백만 인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차별 철폐, 노인 고용, 활발한 노화, 사회 차원에서의 보호, 연금 개혁, 사회 참여, 건강, 노인 학대, 세대 간 연대, 기술 변화에 대한 장벽 완화 등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여러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고 로비를 진행한다. 시행 중인 여러 캠페인 중 하나인 Towards an Age-Friendly EU는 2015년 12월에 유럽 인구 변화 협약을 체결하고 AFE-INNOVNET Thematic Network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2016년 1월에 국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였다. 유럽 변화 협약을 통해 조성된 AFE-INNOVNET Thematic Network는 유럽 내 지방, 지역, 국가 차원의 공공 기관과 기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로 이들은 노년층의 활발하고 건강한 노화를 지향하고 의존적인 생활을 지양하며 자연스레 다른 연령층과의 조화를 이루며 사회에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BAGSO의 이사회는 뉴욕에서 열리는 AGE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유럽 전반에 걸친 노인들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한다.

현재 BAGSO에서는 유럽 연합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nForm”은 국가 전반에 걸친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자금 규모만 160만 유로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는데, 이 일환으로 BAGSO에서는 독일의 모든 커뮤니티에 식습관이나 신체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Digital Kompass”을 통해서는 데이터베이스,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Erasmus+(European Mobility Project)”는 유럽 내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테면 프로그램 참여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2년 간 거주하며 두 국가를 비교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한다. 실케 씨는 이에 참여한 경험을 들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접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고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현재 소속된 international policy on ageing 프로젝트의 업무로 인해 다른 국가와 컨택할 때 이와 같은 경험은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Local Alliances for people with dementia”는 국가적 규모의 시범 운영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치매를 앓는 가족들의 모임이다. 워크숍을 통해 치매에 대해 함께 배우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은 치매에 대해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자원 봉사로 이루어지기에 사람들에게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소규모로 둘러앉아 치매 가정이나 친지들끼리만 서로 팁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대책, 조언을 얻기 어려운 지역도 있는가 하면, 가족들 이외에도 자원봉사 의사와 연계해서 의료조언 받거나, 지역사회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실케 씨는 다른 캠페인이나 프로젝트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치매가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기에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실케 씨는 “Secretariat International Policy on Ageing”을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BMFSFJ)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BAGSO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들의 진척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사회와 노인에 대한 관심을 장려한다. 또한, 여러 출판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워크숍이나 이벤트를 기획한다. 더해서, 노인인권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여 노인의 목소리도 대변한다.

BAGSO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노인의 날이다. 3년을 주기로 개최되며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기조연설을 할 정도로 국가적인 행사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5월 28일에 도트먼드에서 열렸다. 참여자들은 연설 경청 등 행사의 이용자로 자리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속한 노인단체를 대변해서 연설도 하고 워크숍을 기획하기도 하며 행사의 주체자로 자리하기도 한다. 그래서 노인의 날에서는 보통 노인들과 단체를 대변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을 모두 다루고 공론화하고자 노력한다. 다방면의 워크숍과 강연이 진행되는데, 트레이닝 워크숍 “Last Aid”를 설명하자면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호스피스(말기환자용 특수병원)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로 하여금 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된 워크숍이다. 또한 바고에서는 노인의 날에 해외 단체를 초대하기도 한다. 바고와 같은 단체를 조직하고 싶어 하는 국가나, 교류를 원해 방문하는 단체들도 있다.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의 대표단이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각국의 대표단은 앞서 언급한 워크숍도 함께하고, 앞으로 어떻게 노인을 대변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바고 또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기에 해외에서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최근의 노인의 날에 벨기에, 아일랜드, 호주 등의 국가에서 온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국제 워크숍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결권에 대한 담론을 나누었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5-60대가 더 고령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지닌 이들은 사회참여와 교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때문에 이 이슈는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핵가족화뿐 아니라 사회가 다변화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자리로 인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된 자녀가 노인이 된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한다거나 자녀의 바쁜 업무로 인해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하여 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만연하다. 맞벌이 부부, 한가정 부모, 다문화가정 등의 가족형태도 많이 보인다. 실케 씨는 이와 같은 양상이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회적 변화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실케 씨는 세대 간 교류는 매우 중요하며 세대 간 활동을 고무시켜야 할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노인 세대를 바라보는 이미지는 주로 부정적이며, 노인세대 자체도 본인들이 사회에 부담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실케 씨는 독일에서 노인세대를 바라보는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바고에서 노인 세대 이미지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주었다.

BAGSO에서는 우선 여러 출판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실케 씨에 따르면 출판물은 BAGSO의 성공 요인 중 하나다. 독일 사람들은 출판물을 선호하는 데다 단체의 활동을 홍보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실케 씨는 대중에게 잊혀지는 건 한 순간이므로

한국 내 노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과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바고에서는 이미지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미디어를 활용한 이미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미디어’는 단순히 TV나 신문 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도 포함한다. 또한 노인과 관련된 만화나 삽화 공모전을 하기도 한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이미지 캠페인의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들이다. 이처럼, 에코백이나 안경다리, 공책, 수첩 등 실생활적인 제품에 노인 세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삽화나 카툰을 삽입하여 캠페인 제품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사회내에서 노인세대와 노화 등에 관해 생각해보게 하고 이를 실생활과 밀접한 방식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노인 관련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첫 관문이다.

바고에서 진행한 노인 이미지 제고 프로젝트 중 주목 할만한 것은 바로 “Senior trainers”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필요한 곳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 전달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 세대는 퇴직 후에도 배움을 즐기고 자신의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을 즐긴다. 그 결과 노인 세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시니어 트레이너로서 인식하고 자신감을 얻는다.

더해서 바고는 학교에서 노인 세대의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다세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노인 세대의 이야기를 사회에 들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그가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세대 간 교류와 지식과 경험의 전달, 그리고 노인 세대에 대한 세대 간 이해까지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노인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권유했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동영상인 아닌 치매에 걸린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과 감동을 전해준다. 이러한 채널을 만들어 이미지 제고에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실케 씨는 덧붙였다.

독일에서 노인 세대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 실케 씨는 한국처럼 사회는 전반적으로 노인 세대를 짐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독일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노인의 이미지는 여전히 후진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청장년층이 소비하고 또 다시 미디어로 만들어내고 있다. 동시에 이런 이미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실케 씨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당신이 중년임에도 연금 제도가 매우 잘 갖춰져 있는 노인 세대가 부럽다고 했다. 또한 이처럼 노인세대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을 사회에 환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여행을 다니거나 노후를 즐길 뿐 아니라 사회에 생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노인 세대를 필요로 한다. 한편으로는, 노인세대가 현재 앓고 있는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것들이 두렵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팀은 바고가 노인의 ‘현실적’인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와 방법이 궁금했다. 바고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노인세대의 활동적인 이미지와 함께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기관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미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노인 세대에 대한 현실적인 이미지를 사회에 알림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부정적인 것임이 아닌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케어 질에 대한 문제점 또한 제기할 수 있다.

바고가 현실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는 “독일 노인의 날” 행사가 있다. 행사에서 바고는 노인세대의 신체적 불편과 퇴행성 질병, 또 죽음 자체를 가시화하려고 노력한다. 휠체어 체험이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 또 치매 등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린다. 이러한 인식 제고는 단순히 노인 세대에 대한 인식 변화 뿐 아니라 노인 세대에 얼마나 양질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표도 포함된다.

3) Tat Und Rat

가) 사전조사

TAT und RAT은 50세 이상의 고령자 단체로 독일 본과 그 주변지역 노인들의 연대단체이다. 약 300명 구성원의 규모이며, ‘Action and Advice’라는 활동모토로 은퇴 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서로 도우며 살자는 노인들의 모임이다. 함께 모여 직업과 그 이후의 삶 그리고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노인의 여가생활에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사회로 나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여가활동도 함께 하고, 서로의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 형성하는 단체이다. 치매예방, 절세 등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운영 중인 여가모임들은 크게 전자기기(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관련, 예술 활동(사진, 사진편집, 디지털아트, 음악, 시)관련, 신체활동(노인운동 프로그램, 자전거, 하이킹) 관련, 여행(버스투어, 본 도심여행)으로 나뉜다. 회원들은 연회비(36유로, 한화 약 5만원)를 낸다. 그리고 회원들과 강사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무료로 기술을 공유한다.

나) 현장답사

본 팀은 2018년 7월 13일 오후, 실케(Silke)씨와 함께 Tat und Rat에서 주최한 여름 파티(Summer party)에 초대되어 참석하고 Tat und Rat 회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선, Tat und Rat은 25명에서 시작해서 300명에 이르게 성장하였다. Tat und Rat의 주요한 활동은 교육이며 BAGSO에 속하는 회원 단체 중 하나이다.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예를 들면 모바일 기기, 언어(프랑스어, 영어), 예술, 여행, 등산, 철학 등이 있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수준별로 학습을 진행하고 근처에 있는 방에서 진행한다. 또한, 함께 버스 투어, 사진 전시회, 박물관 등에 다닌다. 그리고 각 그룹의 최소 인원은 7~8명 정도이다. 모든 프로그램 비용은 멤버십 비용에 포함된다. Tat und Rat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가더라도 다과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비용을 단체에서 부담한다.

홍보 방법은 지역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을 통한 홍보이다. 그리고 Tat und Rat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때,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Tat und Rat의 활동에 2번 참여 후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부담없이 참여해볼 수 있는 것이다. 또, Tat und Rat의 활동 범위 또한 제한적이지 않고 본(Bonn) 전역에서 많은 온 많은 회원들이 있다.

주목할 점은, Tat und Rat의 주요 활동인 다양한 교육은 사회적 교류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주된 활동은 교육, 지식 공유 활동이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활동의 목적은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대부분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하셨다.

본 팀이 참석했던 Summer party는 1년에 한번 있는 중요한 연례행사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도 하고, 바베큐 파티, 다과나누기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행사이다. 이 날 아카펠라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재능을 살려, 아카펠라 공연을 진행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일의 국민 노래로 돌림노래를 준비해와서 회원들 모두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즐기고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였다. 본 팀이 함께 써머파티를 즐기며 느낀 것은 Tat und Rat의 회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활발하며, 아직도 인생을 즐길 열정이 가득하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온 우리를 오히려 역으로 인터뷰하기도 하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자 했고, 아카펠라 그룹에서 본 팀만을 위한 공연을 따로 열어주기도 했다. 본 팀도 답례로 한국의 아리랑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등 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노인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경험이었다.



<그림 3>
Tat und Rat
Summer Party 1



<그림 4> Tat und Rat Summer Party 2



<그림 5> Tat und Rat Summer Party 3

4. 핀란드 노인 공동체 탐사

1) Loppukiri Housing Community

가) 사전조사

로푸키리는 헬싱키 시내 바닷가에 위치한 중년 및 노년 대상의 주택 공동체다. 로푸키리 구성원들은 450 평방미터의 7층 건물에서 58개의 세대를 구성하며 함께 지내고 있다. 각 세대는 36~80 평방미터에 달하며 부엌, 욕실과 발코니 등 훌륭한 이용시설을 자랑한다.

로푸키리 건물은 'Asunto Oy Helsingin Loppukiri'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이 회사는 로푸키리의 구성원들이 주주가 되어 만들어진 민간주택법인이다. 이 회사는 전문 부동산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경영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아파트의 소유주인 주주들은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또한 소유한 주식 수에 기반해 연례 총회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또한 로푸키리 아파트는 주인이 점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세대에 거주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48세이며, 입주자들은 로푸키리 안에서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게 된다.

로푸키리의 주택은 2004년 가을에 착공하여 2006년 4월에 완공되었다. 건설 계획과 건축 설계에서 미래 거주자들이 참여하여 배치, 방의 분할, 자재 및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래 계획보다 2년 일찍 시작했다. 공동 설계 기간 동안 거주자들은 건축가들과 깊은 논의를 통해 거주할 공간을 구상했다.

아파트 단지를 공동 설계하는 것 외에도 주민들은 공동 구역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층과 7층은 모두 공용공간인데, 주민용 주방, 식당, 도서관, TV가 있는 작은 공간, 사무실, 세탁실, 자전거를 위한 지하실도 모두 공동 구역에 속한다. 꼭대기 층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것이고, 2개의 사우나, 운동 공간, 벽난로가 있는 다목적 거실과 객실이 있다.

로푸키리는 'Active Seniors Association'의 6년간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이 협회는 2000년 8월 스톡홀름에 있는 베르드크 네펜 지역과 비슷한 맥락에서 노인을 위한 주택 공동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이다. 지난 2-30년 동안 노인들을 위한 보살핌은 사회의 책임이었지만, 1990년대의 경제 침체 이후 고령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동안 사회 서비스는 축소되어 왔다. 협회를 설립한 4명의 여성들은 그들의 친척들을 부양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들은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해결하고자 했고, 로푸키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2001년 1월 시 당국은 건설 부지를 할당했고 2년 후에는 건설 관리 회사와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 주택의 건설이 완료되고 로푸키리 지역 사회가 시작된 후, 'Active Seniors Association'(이하: 협회)은 로푸키리 커뮤니티의 모체가 되었다. 비록 협력을 통해 협회와의 강한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거주 공동체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등 다른 많은 연계 활동들이 남아 있었지만, 로푸키리는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단체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로푸키리의 구성원이면서도 대부분 협회의 일원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로푸키리에서는 미래의 거주자들에게도 협회에 가입하여 거주 연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협회 구성원들은 로푸키리 활동에 봉사하고자 하지만, 모든

협회 구성원이 로푸키리의 거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Loppukiri는 거주자들의 주체적인 활동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 모든 거주자들은 각자의 집을 소유하며, 각각의 집은 평범한 다른 집처럼 거주자 개인에게 있어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다. 로푸키리는 그 건물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로푸키리 안에서는 구성원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을 제공하여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 집을 돌보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의무이다. 로푸키리의 일에서는 오직 기술적인 유지 보수에 관련된 것만 외부인이 개입하게 되고 나머지는 구성원들의 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핀란드의 여름휴가에 해당하는 세 달(6,7,8월)을 제외하고 로푸키리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가 제공된다. 함께 요리하고 식사를 나누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며, 거주자 모두는 이러한 활동을 좋아한다. 공동 의무를 이행하는 각각의 working group은 1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6주에 한 번마다 교대하고, 로푸키리 주택의 근처 정원을 가꾸기도 한다. 거주자들은 일주일에 네 번 식사를 함께 하고, 다른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며 축제를 즐기기도 한다. 또한 겨울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활동한다.

로푸키리에서는 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회의의 주요 임무는 로푸키리에서의 공동 의무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식사 등에 쓰이는 예산을 설정하며 로푸키리에서의 삶이 거주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회의에서는 주로 로푸키리의 재정을 관리하며 로푸키리 거주자들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모든 구성원들은 회의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 로푸키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있다. 그들은 이웃들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헬스케어나 홈서비스에 대한 제공은 로푸키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여 각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나) 현장답사

본 팀은 2018년 7월 16일 헬싱키의 로푸키리(Loppukiri) 거주공동체를 방문하여 카리나 하카라이넨(Kaarina Hakkarainen)씨와 로푸키리의 설립과 거주자들의 삶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협동을 기반으로 한 노인세대의 거주 공동체 로푸키리는 그 이름에 ‘마지막 전력질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들은 설립과 함께 거주자들이 존중해야 할 네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①사생활과 우정, ②자율성과 우리 삶을 지배할 권리, ③유쾌하고 활동적인 일상생활, ④이웃 간의 도움이 그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걸맞게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여 로푸키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로푸키리에는 51세부터 98세에 이르는 63명의 거주자들이 있다. 그 중 6쌍의 부부가 있고, 홀로 사는 6명의 노인 남성과 46명의 노인 여성들이 있다. 즉, 12명의 남성, 51명의 여성으로 성별 비율로 봤을 때 여성 거주자가 더 많은 실황이다. 또한 로푸키리 거주자들이 이곳에 입주하게 된 배경은 굉장히 다양하다. 원래부터 헬싱키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많지만, 전국 각지에서 로푸키리로 이사를 온 사람들도 많으며 직업이나 전문 분야 또한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거주자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의 삶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정신적 활동의 범위에서 부유하다.”라고 어떤 거주자가 밝혔

는데, 로푸키리에서의 삶이 큰 만족을 주고 있음을 이 말이 대변하고 있다. 로푸키리 아파트는 58세대가 살고 있고 각 집은 36평방미터에서 80평방미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공간의 넓이는 400평방미터에 달한다. 공동 공간은 식당, 도서관, 두 개의 사우나, 게스트룸, 테라스, 빨래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푸키리에서의 삶에 정부의 지원금은 없으며 각각의 세대는 개인 소유의 집이다.

핀란드는 유럽 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많은 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테면 노인은 스스로를 쓸모없고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여 심적으로 위축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네 명의 여성이 있었다. 바로 로푸키리의 설립자들이었다. 1999년에 그들은 마을 회관을 방문하며 로푸키리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리고 2000년 8월에 The Active Senior Association(이하 협회)을 설립하며 로푸키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단체는 경험이 적고 무일푼인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나 그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로푸키리라는 꿈을 향해 움직였다. 그들은 용감하게 헬싱키 시에 로푸키리를 짓기 위한 부지를 요구하였고, 헬싱키 시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Arabianratna 지역의 부지를 협회에 임대하였다. 이렇게 민간과 정부는 협업하여 로푸키리를 설립하였다.

로푸키리는 거주자들의 개인 아파트와 공동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푸키리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2002년 12월에 건설 회사인 사토와의 논의를 통해 로푸키리 건축 전반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2013년 1월에는 로푸키리에 적용될 세부 법 규정이 제정되고, The housing company(condominium)를 설립하였다. 협회에서는 로푸키리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장래의 주민들을 인터뷰를 진행하여 신중하게 모집하였다. 미래의 거주자들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공통 공간과 아파트에 대한 생활 지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로푸키리는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4월에 완공되었고 2006년 4월 21일에 거주 신청자들은 로푸키리로 입주했다.

“Active Senior Association”은 최근에 제1의 집 로푸키리와 제2의 집 코티사타마에 더해 새로운 집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본 협회는 노인 세대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주거 시설이 거주자와 노인 세대에 만족감을 안겨주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거주 시설 설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 번째 집도 로푸키리와 코티사타마처럼 미래의 거주자들이 협회를 결성하여 거주 공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설계할 예정이다. 로푸키리 협회와 코티사타마 협회는 각 거주 시설을 건설하기 전 거주자들이 주체적으로 계획과 설계를 담당하면서 생성한 단체이다. 따라서 두 협회는 큰 관련 없이 각자의 아이디어와 각각의 거주공동체에 집중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다. 로푸키리 협회는 2013년에 만들어졌고, 코티사타마 협회는 2015년에 만들어졌으며, 클라사타마에 세워질 세 번째 집은 현재 미래의 거주자들을 모집해 협회를 세울 준비 중이다.

로푸키리의 조직은 세 가지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로푸키리 아파트에 집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The Housing Corporation Loppukiri Asunto-osakeyhtiö”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아파트에 세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곳의 거주자들이 만든 “Loppukiri Community”가 있고, 마지막으로

로푸키리 협회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The Loppukiri Association”이 있다.

“The Housing Corporation Loppukiri Asunto-osakeyhtiö”(이하: 로푸키리 주택공사)는 로푸키리 아파트에 실 세대를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소유주는 거주하거나 임대를 주기도 한다. 로푸키리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 이를 구상하고 설계하였던 로푸키리 협회에서는 첫 번째 소유자들을 모집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로푸키리 아파트로 이주했지만 몇몇 소유자들은 아파트를 임대하기도 했다. 오늘날 로푸키리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처럼 주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로푸키리에 입주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곳에 입주할 수 없다. 로푸키리 주택공사는 연 단위로 회의를 열어 이사회의 임원을 선출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주택공사의 운영비 관리는 다른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아웃소싱하여 진행하고 있다.

“Loppukiri Community”는 앞서 간단히 언급했듯, 실제 로푸키리 거주자들의 모임이다. 대부분은 로푸키리 아파트 세대의 실소유주이지만, 개인 시장거래를 통해 세를 들어 거주하는 사람도 소수 있다. 타인에게 양도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예외상황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현재는 3세대가 세를 들어 살고 있다. 실거주자들의 모임인 만큼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규칙들을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 회의에서 로푸키리 주택공사나 로푸키리 협회에 거주자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 제안서를 만들기도 한다. 의장과 총무는 매년 선출한다. Loppukiri Community는 총 6개의 working group으로 구성된다. 커뮤니티 전체의 의장과 총무 이외에도 각 그룹에는 대표가 한 명씩 있으며, 이들은 의장과 총무를 도와 회의에서 결정 난 것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를 하게 된다.

“Loppukiri Association”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들의 공동거주 주택을 보급하고 알리는 것, 협회의 회원여부를 떠나 모든 로푸키리의 거주자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oppukiri Association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소정의 연 회원비를 지불해야한다. 또한, 로푸키리의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모든 로푸키리 거주자들은 아파트 매입 시에 로푸키리의 정관에 따를 것을 서명하게 되어있다. 그 정관의 조항 중 하나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Loppukiri Community의 6개의 working group중 한 그룹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모든 로푸키리 거주자들은 대략 10~12명으로 한 그룹을 구성해서 총 6개의 그룹을 이루어 살아간다. 로푸키리 공동주택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을 그들 스스로 한다는 것인데 모두가 예외 없이 duty work를 수행해야 한다. 그룹은 한 주씩 돌아가면서 6주마다 돌아오는 차례에 duty work를 수행하게 되는데 메뉴선정, 장보기, 저녁 식사준비, 공동 공간 청소, 매일 저녁 문단속, 전기단속 등의 안전단속, 세대 안부 확인하기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그룹단위로 일도 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그룹 구성원들끼리는 가족처럼 지내게 된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더 끈끈한 가족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로푸키리를 나가는 되는 사람들의 빈자리 때문에 그룹 간의 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그룹의 구성원을 변경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룹에 남을지, 다른 그룹으로 갈지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

로푸키리에서의 삶은 이처럼 공동체 의식과 봉사 의식, 즉 협동에 기반한다. 로푸키리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로푸키리 거주자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며 공통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취미 그룹을 구성한다. 더해서 이들은 매달 토의를 통해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이웃끼리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돌본다. 로푸키리에서의 즐겁고 활동적인 삶은 심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한다고 거주자들은 말한다.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들을 구성하고 로푸키리 안에서의 모든 일은 거주자들이 최대한 해결하면서 거주자들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물론 헬스케어와 복지 서비스는 여느 다른 거주시설과 마찬가지로 정부 또는 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공동의무 이외에도 로푸키리 구성원들은 교류와 즐거움을 위해 파티를 열기도 한다.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시즌에 로푸키리에서는 파티를 열어 거주자 간의 유대를 다지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파티 뿐 아니라 일상적인 공동 식사 역시 하나의 사회적 활동이다. 로푸키리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로푸키리 공동체 내의 다양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이웃 간 안부를 묻는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4번 저녁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평소보다 더욱 건강한 음식으로, 끼니를 거르지 않고 제 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취미 활동 모임과 다양한 활동들은 로푸키리 거주자들에게 심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든다. 정기적인 취미 그룹 활동은 로푸키리에서의 삶을 즐겁게 만들고 거주자들이 건강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다. 취미 활동에는 하이킹, 자전거타기, 콘서트 감상 등의 야외 활동과 영화감상, 글쓰기와 책 출판, 음악 감상 및 노래, 수영, 춤, 요가, 뜨개질, 카드게임, 외국어, IT 그룹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모든 취미 활동 그룹은 거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며 전문 강사를 직접 고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로푸키리는 대학들과 연계하여 콘서트를 기획하기도 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콘서트를 통해 로푸키리에서의 삶과 노인세대의 행복, 그리고 단순히 로푸키리 안에서가 아닌 지역 사회 안에서의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로푸키리는 항상 더 나은 환경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자 하는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2) Kotisatama

가) 사전조사

코티사타마는 헬싱키 도시 환경에 위치해 있는 중년 및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63세대로 구성된 아홉 층짜리 건물과 넓은 지붕 테라스를 포함하여 500 평방미터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각 세대는 38,5~77,5 평방미터이며 모두 요리 시설, 욕실 및 발코니를 갖추고 있으며, 8명 정원의 엘리베이터와 계단, 두개의 출입구가 있다.

로푸키리처럼 코티사타마의 자산은 공동체의 대다수가 주주가 되는 민간 주택 공사(AsuntoHelsinginKotisatama)에 의해 소유된다. 또한 이곳에서의 최소 연령 또한 48세다. 코티사타마는 2013년 11월에 착공해 2015년 6월 완공했다. 로푸키리와 같이 계획 단계와 건축 설계 단계에서 미래의 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코티사타마의 구성원들 또한 아파트 단지 설계 외에도 공동 구역을 함께 설계했다. 1층과 2층, 9층은 주로 공용 공간으로 사용된다. 공동 부엌, 식당, 거실, 자전거를 보관하는 지하실 두 개가 있다. 도서관, 사무실, 세탁실, 객실은 2층에 있으며, 꼭대기 층은 여흥을 위한 곳으로, 벽난로가 있는 다목적 거실과 결합된 운동 공간, 그리고 사우나 2개가 있다. 따뜻한 계절에는 옥상 테라스가 레저와 소규모 모임에 인기가 있다.

코티사타마의 위치는 Kalasatama로 이곳은 오래 된 항구이며 스마트 산업이 발달되어있는 도시다. 스마트 도시인 칼라스타마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코티사타마 또한 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가 도입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칼라스타마와 휴양지인 무스티카마아 섬을 잇는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어 거주자들이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코티사타마 공동체는 교통에 있어서도 접근이 용이하며, 헬싱키 동부 뿐 아니라 시내 중심부도 지하철과 버스를 통해 방문할 수 있다.

코티사타마는 로푸키리처럼 Active Senior Association의 6년간의 거주공동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제 1의 집 로푸키리에 이어 두 번째로 건설된 제2의 집에 해당하며, 2016년 6월 기준 거주자 수는 84명이고, 연령대는 50~80세다. 시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지어진 아파트며, 각 집의 매매 가격은 Hitas-system에 따른 시의 가격 규정(reselling price regulation)에 의해 결정된다. 2015년 평방미터 당 가격은 약 4,372유로였다.

코티사타마에서의 활동은 로푸키리와 거의 동일하며, 근무 교대 그룹의 구성원이 12-13명인 것만 다르다. 또한 코티사타마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1. Active Seniors Association의 멤버일 것, 2. 지원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할 것, 3. 모든 거주 후보자는 추후 인터뷰를 통해 코티사타마의 주요 원칙을 이해했는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받을 것, 4. 집은 삶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을 주요 조건으로 한다.

나) 현장답사

본 팀은 2018년 7월 17일 헬싱키의 코티사타만 하우스 커뮤니티에 방문하여 레나 바테라(Leena Vahtera)씨와 함께 코티사타만 거주공동체와 주택공사, 코티사타마 협회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바테라 씨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로푸키리와 코티사타마 주거 공동체의 차이점에 대해 첫 번째로 질문했다. 코티사타마는 로푸키리의 성공사례 이후 2017년 지어진 두 번째 집으로, 63층에 37평방미터~77평방미터의 세대로 구성된 조금 더 큰 주거공동체다. 이곳에는 8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9쌍의 부부, 3명의 노인 남성, 나머지 43명의 노인 여성이 살고 있다. 또한 로푸키리보다 코티사타마 거주자의 평균 연령이 조금 더 낮은 편이다. 최저 연령은 50대, 최고 연령은 80대이고 전 연령대의 평균은 73세였다.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은퇴했지만 10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직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코티사타마는 로푸키리보다 공동 공간이 다양하고 그 크기가 크다. 공동 공간의 넓이는 500평방미터에 달하며 다양한 취미 공간(Hobby room)과 넓은 발코니가 특징이다. 우리가 방문했던 여름 휴가시즌을 제외하고 매일 함께 요리를 한다. 8월 중순이 지나면 이러한 공동 의무 생활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이런 점에서 코티사타마는 로푸키리와 유사하면서도 사뭇 다른 양상을 띠기도 한다. 코티사타마에는 working group(이하 그룹)이 있다. 총 여섯 개의 그룹이 있으며 각 그룹에 배정된 인원은

12-13명이다. 각 그룹 내 개인에게 배정된 역할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요리를 주도하는 셰프, 장보기 당번, 회계 등이 있다. 단순히 함께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로푸키리의 working group과는 차별되는 점이다. 그룹 안에서 누군가가 더 큰 책임이나 의무를 맡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역할과 책임을 분산하게 되었다고 바테라 씨는 덧붙였다. 그러나 혹시 거주자 중 누군가가 몹시 건강이 악화된다면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거주자들은 이러한 의무에 부담을 느끼기 보다는 공동 의무에 대한 책임을 행사하는 것을 즐거운 일로 여긴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의무는 고령인 거주자들로 하여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바테라 씨는 덧붙였다. 그렇기에 가족 구성원 중 48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의무를 진다.

우리는 이러한 답변을 들으며 코티사타마에 유독 공동 공간이 확대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바테라 씨는 이에 코티사타마 거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The Kotisatama Association를 조직하여 거주 공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협회 구성원들이 더 많은 공동 공간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제1의 집, 로푸키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시 거주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면, 공동 공간을 확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로푸키리의 많은 거주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함께 활동하는 것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더해서 로푸키리를 설계했던 건축가들이 코티사타마 아파트도 건축했는데 건축가들 또한 각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훌륭한 조언을 해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코티사타마에서는 로푸키리보다 공동 공간을 대폭 확충하게 되었다. 9층 건물인 코티사타마 주택 전체에서 공동 공간은 총 19개에 달한다. 로푸키리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공동 거실에서 진행했다면, 코티사타마는 hobby group을 위한 특화된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테면 바느질, 목공을 할 수 있는 봉재, 목공실이나 독서모임을 할 수 있는 거실과 합쳐진 형태가 아닌 따로 마련된 보다 넓은 도서관 등을 hobby group에 특화된 공간으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옥상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넓은 테라스에서 매주 한 번씩 바비큐를 해 먹기도 하고, 공용 주방에서 당번들이 조리한 음식을 넓은 홀처럼 원형 테이블들이 세팅 되어있는 다이닝룸에서 먹기도 한다. 또 주목할 점은 스마트 도시에 입지해있는 만큼 로푸키리보다 신식 설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세탁실에는 모든 세대가 세탁기를 갖추고 있지 않기에 세탁기를 여러 대 비치하였고, 옷에 풀을 먹이는 기구, 이용하기 쉬운 다림질 기구 등도 있었다. 그리고 Hobby Group의 활동 내용이나 일정 등을 비롯한 코티사타마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1층 로비에 전자 게시판도 설치하였다. 이 전자게시판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새 글을 등록하고 확인, 관리 할 수 있도록 연동되어있다.

또한 코티사타마 아파트는 로푸키리처럼 헬싱키 시 정부가 토지를 낮은 가격에 임대해 짓게 되었다. 코티사타마가 위치한 지역은 헬싱키 시가 제안한 헬싱키 내 새로운 거주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여러 지역 중 하나이다. 협회에서는 여러 지역 중 바다가 가까운 칼라만타 지역을 선택하였고 헬싱키 시에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외에도 헬싱키 시에서는 협회가 코티사타마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로푸키리와 마찬가지로 건축에 필요한 재정은 코티사타마 협회 사람들이 직접 지불했다. 코티사타마 아파트는 개인적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한다. 바테라 씨의 경우 2개의 방으로 구성된 47평방미터 넓이의 집에 살고 있는데, 매 달 관리비로 280유로를 지불하

며 전기세와 수도세는 별도라고 했다. 그녀는 처음 입주할 때 250,000 유로를 지불했으며, 관리비와 입주비는 모두 방의 크기에 비례하여 커진다고 한다.

그리고 바테라 씨에 따르면 핀란드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 공간은 다양하였다. 로푸키리나 코티사타마와 같은 거주 공간 외에도 시니어 하우스가 있었다. 시니어 하우스에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푸키리와 코티사타마와 달리 시니어 하우스에는 공동 거주 공간이나 hobby group, working group 등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연령제한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아파트와 유사하였다. 코티사타마도 마찬가지로 연령제한이 있는데 코티사타마의 세부 법 규정에 48세 이상으로 명시되어있다. 모든 식구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하다. 식구 중 한 명만 충족하면 된다. 또한, 아이들과 애완동물들과 함께 살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문제는 각 세대가 온전히 책임진다.

또한, 우리는 로푸키리는 설립 초기와 달라진 상황에 따라 생활 지침이나 거주인의 자격 조건도 변화시킨다는 점을 떠올리며 코티사타마에도 그러한 지 궁금하였다. 이에 대해 바테라 씨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코티사타마에 처음 입주할 때만큼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새로운 거주민에게 코티사타마라는 거주 공간이 지닌 특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더해서 바테라 씨는 The Active Senior Association(이하 협회)에서는 코티사타마가 설립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뿐 코티사타마가 설립된 이후에는 아무 것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협회가 아닌 코티사타마가 설립되며 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The Kotisatama Association에서 코티사타마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3) Aktiiviset Seniorit ry(Active Seniors Association)

가) 사전조사

2000년에 시작된 Aktiiviset Seniorit ry는 핀란드와 이웃공동체 모델에 기반한 노인 세대의 주거 모델의 결합으로 결성되었다. 그들은 노인 인구의 복지와 건강, 자립 및 함께 사는 것에 기여하고자 노인을 위한 두 개의 공동 주택을 건설했다. 그것이 바로 Arabianranta지역의 로푸키리(Loppukiri)와, Kalasataman 지역의 코티사타마(Kotisataman)다.

노인 협회는 공동주택 건설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또한 노인들의 생활 여건과 발전에 대한 사회 토론에 대해 기여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조건 향상과 자기실현의 장이자 삶의 동기 부여가 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협회의 주요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정기적인 모임: 주제는 다양하며, 회원들은 협회에서 여는 여러 가지 이벤트와 다양한 노인 관련 주제들에 대해 발표한다.
- 여름 여행: 여름에 한 번, 공동 프로그램 견학이 있다. 2016년의 여름 소풍은 핀란드 만을 거쳐 탈린에 다녀왔다.
- 문화적 관계: 이 협회는 다양한 문화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의 주최자, 그리고 협회 회원 중 한 명이 또 다른 문화의 주최자인 경우가 있다.

- 교육: 협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 지역 사회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위생 및 응급 처치 훈련의 교육 및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지역 사회 교육: Loppukiri와 Kotisatama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집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지역 사회 교육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이 협회는 참가자들에게 늙어감(Aging) 및 그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 Literature Circle: 문학 서킷은 협회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모임으로, 이곳에서는 신간이나 오래된 고전을 읽고 토론을 한다.
- Hobby Circuits: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 외에도 공동주택은 다양한 요가, 체조, 카드 게임, 공예, 수공예품, 관광 등의 취미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서클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동기에서 만들어졌으며 단일 회원이 운영한다.

나) 현장답사

본 팀은 2018년 7월 17일 “The Active Seniors Association”(이하 협회)에 방문하여 레나 바테라(Leena Vahtera)씨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협회는 2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매우 작은 협회이다. 이 협회는 따로 직원이 없으며, 사무실은 코티사타마 하우스(Kotisatama house) 내에 위치해 있다. 협회의 업무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진행되며 연간 6000유로(2018년 8월 1일자 환율로 한화 7,852,320원)로 운영한다. 모든 의사 결정은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들과 협회 의장은 매년 정기적인 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과거에는 로푸키리나 코티사타마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협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로푸키리 거주자 중 30%, 코티사타마 거주자들의 80%는 여전히 협회의 구성원이다. 협회는 각각의 거주자들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그들을 지원한다.

협회는 2000년도 노후의 삶을 계획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비전을 가진 몇몇의 여성들이 모여 설립되었다. 그녀들은 초창기에 스웨덴의 주택 공동체를 벤치마킹하여 구상하였다. 왜냐하면 스웨덴은 핀란드보다 주택 공동체가 더 보편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로푸키리(Loppukiri)와 코티사타마(Kotisatama)의 거주 모델은 스웨덴의 주택 공동체인 “Färdknäppen”을 기반으로 했다.

협회는 설립 이후 몇 년간 성장해왔다. 그리고 힘든 협상 끝에 ‘로푸키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헬싱키 시로부터 임대받을 수 있었다. 또, 로푸키리를 지을 건축사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후, 협회는 주로 입소문으로 예비 입주자들을 모았다. 하지만 세 번째 로푸키리부터 리플렛을 발간하고 브리핑과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언론을 통해 설립 계획을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예비 입주자들은 건축가와 협의하여 거주 공간과 공용공간을 디자인했다. 2009년에는 두 번째 로푸키리를 위한 공간을 임대받아 ‘코티사타마’를 건설하였다. 올해 6월에는 세 번째 로푸키리를 위한 공간을 Kalasatama 지역에 또 임대받기에 성공하였으며 가을부터 건설에 착수한다. 4~5년 후에 완공될 예정이며 아직 정해진 이름은 없다. 핀란드에는 큰 영토에 비해 500만명이라는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그 중 100만 명이 수도인 헬싱키에 모여살고 있다. 그렇기에 헬싱키는 다른 지역에 비해 거주 공간이 적어 집중된 인구를 수용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바테라 씨는 다른 지역이 아닌 헬싱키에 제

2, 3의 로푸키리의 설립을 고려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바테라(Vahtera) 씨는 협회가 거주 공간에서의 생활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협회는 새로운 로푸키리 설립과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활동을 계획하고, 거주자를 인터뷰를 통해 선정하면서 좋은 이웃과 함께 단란함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각각의 집은 거주자들의 소유이다. 요약하자면 협회는 거주자를 모으고 주택 공동체의 모델을 제안할 뿐, 모든 집에 관한 결정은 거주자들이 직접 한다.

III. 결론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사회에서 노인세대는 짐으로 치부되고 있고, 노인 세대 스스로도 은퇴 후 본인들의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노인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며 노인 세대의 인력을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노인 복지 분야에서 주로 시행하는 단편적인 경제적 지원보다는, 노인들의 생산성과 잠재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 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가 노인 세대를 주체적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 팀은 이와 함께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노인공동체를 탐사하고, 이를 통해 한국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시사점은 노인복지 단체의 조직적인 측면에서 고안되었다. 한국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 단체가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번 탐사를 통해 이런 단체들을 통합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정부주도형 노인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 정부 산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멀티제너레이션 하우스 프로그램은 전세대의 통합과 이해, 교류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지역 단위의 의미 있는 기관에 멀티제너레이션 하우스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지원하며 관리한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적 절차나 과도한 개입을 배제하고 각 기관의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전세대의 화합, 또는 노인복지기관을 목적으로 통합된 이름을 부여하고 관리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이 형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예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50+프로그램을 보다 뚜렷한 이미지로 브랜드 빌딩하고 산발적인 노인복지 기관을 통합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 형태의 제안이다. 핀란드의 로푸키 거주공동체와 코티사타마 거주공동체는 협동의 의무를 바탕으로 노인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의무 활동에 기반을 두지 않은 여러 시니어 주택도 존재한다. 조금 더 평화로운 거주를 위해 노인 세대가 모여 살지만 세대 간의 실질적인 교류나 만남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로 이 곳에 입주한다. 이처럼 노인들도 여느 세대와 다르지 않게 개인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노인세대의 외로움이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교류가 이러한 문제의 답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동시에 노인세대도 존중받아야 하는 각자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노인세대를 고려한 새로운 거주공동체를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런 노인세대의 욕구의 다양성이 더 많은 영역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의 노인세대의 일상에서 떼 놓을 수 없는 복지, 거주, 여가, 사회적 참여 등 많은 생활의 부분에서 이들 앞에는 매우 단출한 선택지만이 존재한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개인, 자결권을 지닌 개인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공통사로 묶인 개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 노인세대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그들 사이에 이미 형성된 그룹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 하나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대화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공통된 대화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영국의 U3A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룹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와인 시음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그와 관련된 이야기로 서로 묶이고, 서로의 안부와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특정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소외감을 야기한다. 따라서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될 수도 있고,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시 등 지역사회에 이러한 모임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공간대여를 더욱 쉬운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언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공간대여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해 노인세대가 이를 활용하기란 더욱 쉽지 않다. 사교댄스 수업과 같은 활동을 함께 하고 싶어도 공간적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독일의 멀티제너레이션 하우스나 앞서 언급한 U3A는 딱딱한 교실보다는 일상적인 공간을 활용해 활동을 진행한다. 이는 누군가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교회나 카페, 회원들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 될 수 있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을 누군가에게 격 없이 개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공간 대여를 보다 수월하게 개선한다면, 그리고 그 공간들을 보다 일상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한다면 노인공동체 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또한 이런 공간과 활동에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독일 연방정부가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진행하는 MGH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노인세대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젊은 세대가 안고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과 비용부담, 맞벌이 가정의 자녀문제 등을 해결하는 상생구조를 통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세대갈등, 노인의 고독문제 등을 다각적인 문제들을 세대통합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도 노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세대통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된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옴에도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은 이유는 노인세대를 다른 세대와 단절시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노인에 대해 알 수 없는 거부감과 두려움까지 느낀다. 이제는 덮어두고 모른 척 해왔던 사실을 꺼내어 함께 이야기 할 시간이다.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체적 시선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인세대는 경험에서 온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짐작이나 다 바래버린 인생이 아닌, 사회에 새로운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훌륭한 멘토다. 노인세대의 욕구와 경험, 지혜를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모두와 사회의 발전,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한다면 노인 세대와 노인이 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이 머지않은 일일 것이라.

참 고 문 헌

<논문자료>

김민상, 「영국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고찰: 우리나라 노인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나향진, 「아동과 노인간의 세대공동체 구현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세대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Vol.29 No.4, 2009.

박혜선, 「세대교류형 지역가족복지센터의 공간 디자인」, 『대한건축학회』, 제 57권, 제 9호, pp. 54-59, 2013.

박혜선, 남윤옥, 「지역사회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서의 독일 다세대교류센터의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36권, 제 2호, pp. 157-160, 2016.

이주은, 박명숙, 「한국의 노인복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독일 노인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Vol.9 No.4, 2012.

윤빈호, 「세대프로그램으로서의 독일 ‘다세대주택’ 사례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2.

황영희,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학개방을 통한 노인교육 연구 : 프랑스·독일·영국 노인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11.

<인터넷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접속일2018.3.8.)

정경희,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본 연구보고서 2017-25, 2017.

푸르덴셜 스토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세계 각국의 노인 복지 정책", <http://prudentialstory.co.kr/2014-04-09/18991/>(접속일 2018.03.05.)

최창민, “독일·스웨덴 '노인을 위한 나라'의 현미경 노인복지”, <http://www.nocutnews.co.kr/news/4508822>(접속일 2018.03.05.)

고용노동부 해외기자단, “독일의 고령 실업자들을 위한 "Perspektive 50 plus"를 아시나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0332182465(접속일 2018.03.05.)

BAGSO홈페이지, <http://www.bagso.de/bagso-german-national-association-of-senior-citizens-organisations.html>(접속일 2018.03.06.)

김지호, “[실버타운 현주소④]해외 실버타운은?…선진국 시행착오 교훈 삼아야”, http://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818(접속일 2018.03.05.)

연합뉴스, “부산에도 핀란드 '로푸키리' 고령자 자활공동체 만든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6/0200000000AKR20180126112300051.HTML>(접속일 2018.03.06.)

홍석근, “[고령화사회] ① 즐거운 실버공동체...핀란드 '로푸키리'”, http://www.ytn.co.kr/_ln/0105_201103231336176231(접속일 2018.03.07.)

헤럴드경제, “한국 노인 삶의질 ‘열악’…교육·여가영역 15.2점으로 ‘최악’”,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357182>(접속일 2018.03.06.)

Helsingin Loppukiri 홈페이지, <http://loppukiriseniorit.blogspot.kr/p/yhteystiedot.html>(접속일 2018.03.07.)

권혁범, “생애 마지막 전력질주 <3-4> 대안가족, 혈연을 넘어- 한국형 로푸키리 달린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925.22007008861>(접속일 2018.03.06.)

허주열, “[노후빈곤 없는 선진국]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17&aid=0000275149>(접속일 2018.03.06.)

조현숙, “고령화야 말로 가장 확실한 성장 산업” 바파 아흐마디 CPR자산운용 수석매니저 인터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52057>(접속일 2018.03.05.)

<기타자료>

2014 프랑스 독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2014

BAGSO 기관 리플렛

<그림1 출처>

권혁범, “생애 마지막 전력질주 <3-4> 대안가족, 혈연을 넘어- 한국형 로푸기리 달린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925.22007008861>(접속일 2018.03.06.)